

지방화와 노동

— 자료집 —

◀ 집필진 ▶

- 김대기 동향분석실장(총괄)
 - 정진호 책임연구원
 - 홍성민 연구원
 - 이경희 연구원
-

“지방화와 노동”을 펴내면서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지역경제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중앙부처의 주도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지방화에 대비한 각종 논의들도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배분 또는 재정분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개발 전략은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간접자본, 재정여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집행되어야 효율성과 실효성을 가질 것이다.

향후 지방화시대의 개막으로 지역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여건이 지역경제 개발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지역노동시장 자료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예상되는 수요증대에 부응하면서 지역주민 및 지역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지역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화와 노동>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의 발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 연구원의 동향분석실장 김태기 박사와 정진호 책임연구원, 이경희·홍성민 연구원 및 출판팀의 박찬영 책임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무쪼록 본서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지역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여 그 연구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1995년 1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김 대 모

목 차

I. 지방화시대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
1. 문제의 제기	1
2. 지역경제개발 전략의 개념과 인력문제	3
II. 인력공급	5
1. 지역별 인구	5
가. 인구현황	5
나. 인구밀도	5
다. 인구이동	5
2. 지역별 노동공급현황	9
가. 15세 이상 인구	9
나. 경제활동인구	11
다. 취업자	13
라. 실업자	13
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16
3. 지역별 노동의 질	18
가. 취업자의 교육수준	18
나. 인구대비 교육기관의 수	20
다. 인구대비 총학생수	21
라. 인구대비 고등교육기관 및 공업계 고등학교 비중	22
마. 사설학원 의존현황	23
바. 고교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25
사.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	28

III. 인력의 수요	30
1. 지역별 사업체 분포 현황	30
가. 총사업체수	30
나. 규모별 사업체수 분포	31
다. 산업별 사업체 분포 현황	35
2. 지역별 공업단지 현황	38
가. 공업단지 현황	38
나. 지역내 고용인력 현황	41
3. 지역별 도시계획 현황	43
4. 지역별 도로 현황	44
IV. 지역별 근로자 생활	46
1. 지역별 1인당 GDP	46
2. 지역별 임금수준	47
3. 지역별 물가	48
4. 지역별 1인당 조세 부담	49
5. 지역별 주택 현황	50
6.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52
7. 지역별 도서관 현황	54
8. 지역별 공원 현황	55
V. 지역별 노사관계	58
1. 노사분규	58
2. 노동조합	61
VI. 지방화시대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구도 및 노동정책의 방향	64
1. 노동시장의 구도	64
2. 노사관계의 구도	67
3. 노동정책의 방향	69

표 목 차

〈표 1〉 지역별 인구 및 면적: 1994.....	6
〈표 2〉 시도간 인구이동: 1993	8
〈표 3〉 시도간 전입률 및 전출률(%)	9
〈표 4〉 연령구성별 지역인구: 1990	11
〈표 5〉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1993	15
〈표 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1993	17
〈표 7〉 지역별 · 교육정도별 취업자: 1993	19
〈표 8〉 6대도시 사설학원 및 사설학원 의존 현황: 1993	24
〈표 9〉 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상황: 1993	27
〈표 10〉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 1994	28
〈표 11〉 지역내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 1991	31
〈표 12〉 지역내 규모별사업체수: 1993	33
〈표 13〉 지역별 100인 이상 제조업체수 추이	34
〈표 14〉 지역별 · 산업별 사업체수 분포 현황: 1993	36
〈표 15〉 지역면적 대비 공단면적 비중: 1993	39
〈표 16〉 전국 공업단지 현황: 1993	40
〈표 17〉 지역별 가용인구 현황: 1993	42
〈표 18〉 지역별 도시계획 적용 현황: 1992	43
〈표 19〉 6대도시 도로 현황: 1993	45
〈표 20〉 지역별 근로자임금 수준(광공업): 1992	47
〈표 21〉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48
〈표 22〉 6대도시 조세부담 현황: 1993	50
〈표 23〉 6대도시 주택현황: 1993	51

〈표 24〉 6대도시의 보건의료시설 현황: 1993	53
〈표 25〉 6대도시 도서관 현황: 1993	54
〈표 26〉 6대도시 도시공원 현황: 1993	56
〈표 27〉 지역별 노사관계 주요 지표 현황: 1993	59

그림목차

[그림 1] 수도권 전입자의 전주거지 분포(%)	7
[그림 2] 15세 이상 인구 중 25~54세 인구 비중: 1990	10
[그림 3]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1993	12
[그림 4] 지역별 취업인구비율: 1993	14
[그림 5] 지역별 실업률: 1993	15
[그림 6]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1993	18
[그림 7] 지역별 인구대비 교육기관 비중: 1994	21
[그림 8] 지역별 인구대비 총학생수 비중: 1994	22
[그림 9] 6대도시의 사설학원/총교육기관수 비중: 1993	25
[그림 10] 지역별 고교졸업자 중 무직자 비율: 1993	26
[그림 11] 지역별 교원1인당 학생수: 1994	29
[그림 12] 지역내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 1991	32
[그림 13] 지역별 100인 이상 제조업체수 비중 추이	35
[그림 14] 지역별 광공업 사업체 비중: 1993	37
[그림 15] 지역내 5인 이상 사업체수 대비 공단입주사업체수 비중: 1993	41
[그림 16] 지역별 가용인구 비중: 1993	42
[그림 17] 1인당 도내총생산액: 1992	46
[그림 18] 6대도시의 아파트 차지 비중: 1993	52
[그림 19] 6대도시의 인구대비 병상수 비중: 1993	53
[그림 20] 6대도시의 1인당 장서수: 1993	55
[그림 21] 6대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993	56
[그림 22] 지역별 노사분규 발생성향(사업체 1,000개소당): 1993 ...	60

[그림 23] 지역별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취업자 1,000인당): 1993	61
[그림 24] 지역별 노동조합조직률(사업체 기준): 1993	62
[그림 25] 지역별 노동조합조직률(취업자기준): 1993	63
[그림 26] 지역의 인력개발 네트워크 개념도	65
[그림 27] 지방의 공동체적 노사관계에 대한 개념도	69

I. 지방화시대가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 문제의 제기

- ◎ 1995년에 지방자치제선거 실시로 지방화시대가 막을 올리게 되면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됨.
 - 지방화시대가 지역간의 다양성, 자치주의에 동태성을 내포하고 있고
 - 특히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동태성(dynamics)과 이질성(heterogeneity)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가 노동시장이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큼.
 - 또한 세계화되는 경제질서의 변화는 분권화·자율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 개막의 의미는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음.
- ◎ 지방화시대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배분이나 재정분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음.
 - 즉 중앙과 지방정부의 기능배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양하는 문제에, 재정분담문제는 지방세 수입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
 - 그러나 지방화시대를 설계하기에는 논의의 폭이 좁았으며 그 밑바닥에는 중앙정부의 눈으로 지방화를 바라보는 한계를 갖고 있었음.
- ◎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경우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른 구조변화 등을 다루는 논의는 더욱 빈약하였음.
 - 지금까지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은 중앙차원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지역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한 연구나 자료는 부족하였음.

- ◎ 지방화시대가 개막되면서 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이 본격화될 때 지역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임.
 - 70년대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진행되어 지방은 ‘人口空洞化’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개발이 본격화될 때 핵심적인 애로요인이 인력의 확보문제가 될 것임.
 - 이에 따라 지역경제개발전략을 수립할 때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고려가 없을 때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 ◎ 지금까지의 지역경제개발은 국토공간구조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음.
 - 따라서 산업기지나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었음.
 - 또한 경제개발의 의사결정은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었고 추진과정은 하향식이었음.
 - 이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집중현상이 지속되었음.
 - 70년대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도로·항만·통신시설 등 대규모 공공투자가 집중되어 왔으나 80년대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부 지역경제개발사업은 인력난으로 이미 실효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면서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분배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이 추진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차원에서 조성된 일부 공단에 기업들이 입주를 외면함으로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였고
 - 이러한 미분양 사태는 국가의 기간산업기지보다 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공단지가 더욱 뚜렷했음.

- ◎ 지역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인력이동문제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을 가져오게 될 것임.
 - 지역경제개발 차원에서 대기업의 공장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유치기업’에 의한 인력수요는 주변 지역에서 충당되어야 함.
 - 그러나 가용인력의 공급규모가 작아 기존의 지방 중소기업 등 ‘향토

기업'에서 스카우팅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 피해 당사자인 지방중소기업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음.

2. 지역경제개발 전략의 개념과 인력문제

◎ 지역차원의 경제개발은 전국차원의 경제개발과 그 개념이나 전략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지역별로 재정자립도, 지형조건, 부존인력 등 경제개발의 여건이 매우 상이함.
- 둘째, 지역차원의 경제주체들이 훨씬 복합적이어서 기업도 '유치기업'과 '향토기업'으로, 주민과 근로자도 '원주민'과 '유입민'으로,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 '중앙행정관서'로 나누어지게 됨.
- 셋째, 지역경제개발의 추진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중앙정부의 예산 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

◎ 지역차원의 경제개발은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직과 개인의 능력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위양이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지방정부 스스로 지역내 경제주체들간의 유대(coordination)와 각 경제주체들의 능력배양이 중요함.
- 인력양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인력활용에 통근문제 여건조성 등 노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고용관행의 개발이 중요함.

◎ 지역경제개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력개발 전략과 연계되어야 함.

- 지역경제개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력' 업종들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설정되어야 함.
- 지역경제개발을 기획하는 측면에서 볼 때 '주력' 업종의 선정은 인력의 양과 질에 좌우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지역의 인력개발 전략은 경제개발 차원에서 인력의 양성과

활용 그리고 동기유발 문제를 담고 있어야 할 것임.

- ◎ 본 보고서는 주요 지역의 인력개발 여건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임.
- 주요지방(광역시 및 도)의 인력공급과 수요 그리고 노사관계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음.
 - 인력공급 측면에서 인구의 증가 및 유출, 생산가능인구, 교육 및 직업훈련시설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함.
 - 인력수요 측면에서 사업체 분포, 공업단지, 도시계획과 도로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함.
 - 근로자생활 측면에서 1인당 GDP, 물가상승률, 조세부담, 주택, 보건 의료시설, 도서관, 공원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함.
 - 노사관계 측면에서 노동조합조직률, 노사분규 등의 자료를 정리하고자 함.

II. 인력공급

1. 지역별 인구

가. 인구현황

- ◎ 우선 지역별 인구 및 면적(1994년 7월 1일 기준)을 살펴보면
 - 전체 면적의 0.6%를 차지하는 서울의 인구는 10,727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면적 비중 10.8%)의 인구는 전체의 16.4%인 7,280천명임.
 - 전체 면적의 11.4%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40.5%가 분포되어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심각함을 보여줌.

나. 인구밀도

- ◎ 인구와 면적을 동시에 고려한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 서울이 17,730명으로 가장 높고, 부산, 인천, 대구 순으로 높음.
 - 반면 강원(86명), 경북(141명), 충북(185명), 전남(190명)의 순으로 인구밀도가 낮음.
 - 서울 지역의 인구밀도는 강원 지역의 206배에 달해 지역간 편차가 매우 심함.

다. 인구이동

- ◎ 특정 지역의 인구는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증가 이외에 지역간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가로 설명되는데 1993년의 시·도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1〉 지역별 인구 및 면적: 1994

	인 구 (명)	인구비중 (%)	면 적 (Km ²)	면적비중 (%)	인구밀도 (人/Km ²)
서울	10,726,862	24.1	605	0.6	17,730
부산	3,795,661	8.5	529	0.5	7,175
대구	2,246,987	5.1	456	0.5	4,928
인천	2,116,794	4.8	339	0.3	6,244
광주	1,214,347	2.7	501	0.5	2,424
대전	1,153,206	2.6	537	0.5	2,147
경기	7,280,279	16.4	10,773	10.8	676
강원	1,449,000	3.3	16,897	17.0	86
충북	1,373,087	3.1	7,436	7.5	185
충남	1,876,651	4.2	8,323	8.4	225
전북	1,916,919	4.3	8,041	8.1	238
전남	2,245,767	5.1	11,824	11.9	190
경북	2,750,459	6.2	19,448	19.6	141
경남	3,789,707	8.5	11,777	11.9	322
제주	517,451	1.2	1,826	1.8	283
전국	44,453,177	100.0	99,312	100.0	448

주: 지역별 인구는 통계청의 시도별 추계자료임.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 경기 지역으로 295천명의 순이동(전입-전출)이 발생하여 인구유입이 가장 많았음.
- 서울의 순이동인구는 -183천명, 부산과 전남의 순이동인구가 각각 -59천명으로 이들 지역의 인구는 인접 지역 이외에 수도권지역으로 전출이 두드러졌음.
- 대구, 제주, 충북 지역의 순이동인구는 타지역에 비해 적게 나타남.
- 인천, 대전, 광주 지역의 인구는 시도간 이동에 의해 각각 39천명,

38천명, 8천명 증가한 반면 서울, 부산의 인구는 감소했음.

- 6대도시 중에서는 대구 지역의 인구 순이동이 가장 적으며 그 다음이 광주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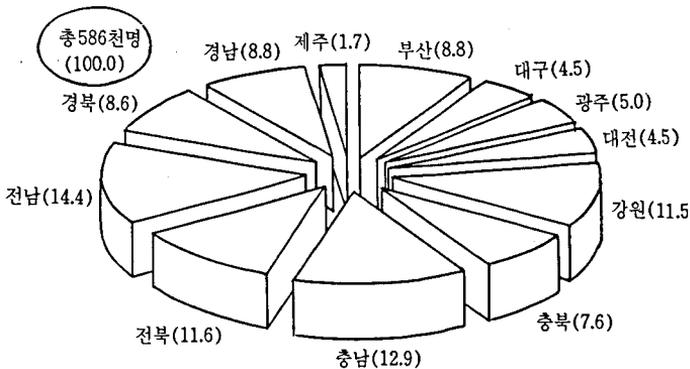
◎ 특히 인구집중이 심한 수도권외의 1993년 전입자의 전 거주지 분포를 살펴보면

- 전남, 충남, 전북, 강원 지역의 수도권 전입이 두드러짐(그림1 참조).
- 전남 지역이 14.4%로 가장 높고, 충남(12.9%), 전북(11.6%), 강원(11.5%) 순임.
- 주로 전라, 충청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였음.

◎ 한편 1990년 이후의 시·도간 전입률과 전출률을 살펴보면

- 1990년 이후 전국평균 전출·입률은 각각 7.5%, 6.8%, 6.5%, 6.4%로 시·도간 인구이동 성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인천, 광주, 경기 지역은 전입률과 전출률 모두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여 이들 지역의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함.
- 서울과 부산의 경우 해당 기간내내 전출률이 전입률을 초과하였음

(그림 1) 수도권 전입자의 전주거지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1993.

〈표 2〉 시도간 인구가동: 1993

(천명, %)

	순이동 (전입-전출)	전출자의 전입지 순위	
		1순위	2순위
서울	-183	경기 (63.3)	인천 (8.5)
부산	-59	경남 (49.2)	서울 (14.3)
대구	0	경북 (54.8)	서울 (12.5)
인천	39	경기 (39.9)	서울 (29.8)
광주	8	전남 (47.7)	서울 (21.3)
대전	38	충남 (24.3)	서울 (21.8)
경기	295	서울 (52.8)	인천 (12.9)
강원	-24	서울 (31.3)	경기 (29.0)
충북	2	서울 (25.4)	경기 (24.9)
충남	-25	서울 (26.0)	경기 (25.3)
전북	-26	서울 (38.2)	경기 (22.3)
전남	-59	광주 (30.3)	서울 (28.5)
경북	-16	대구 (40.0)	서울 (15.8)
경남	10	부산 (37.9)	서울 (14.8)
제주	-1	서울 (30.7)	경기 (15.0)

주: 1) 이동률=(연간 이동자수÷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인구)×100

2) ()안은 지역별 총전출자에 대한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인구가동통계연보』, 1993.

며 최근 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됨.

- 반면 대전과 경기는 전입률이 전출률을 훨씬 상회하여 이 지역으로의 순인구 이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전남, 충남 지역의 경우는 해당 기간내내 전출률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여 이들 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출이 타지역에 비해 활발함.
- 여타 지역에 비해 대구, 제주 지역의 인구는 안정적임.

〈표 3〉 시도간 전입률 및 전출률(%)

(단위: %)

	1990		1991		1992		1993	
	전입률	전출률	전입률	전출률	전입률	전출률	전입률	전출률
서울	7.1	7.9	6.2	6.6	5.8	6.8	5.6	7.3
부산	4.8	5.8	4.4	5.4	4.1	5.4	3.8	5.3
대구	6.3	6.4	6.1	6.0	5.6	5.6	5.4	5.4
인천	14.0	7.5	11.2	7.0	9.9	6.9	9.0	7.1
광주	10.8	8.3	10.3	7.2	8.6	6.8	7.4	6.7
대전	10.1	6.8	9.8	6.4	8.3	6.2	8.9	5.7
경기	13.2	8.9	10.8	7.9	10.9	7.5	11.5	7.2
강원	5.1	8.0	5.0	7.4	5.1	6.7	4.9	6.5
충북	6.2	7.5	6.2	7.0	6.1	6.1	5.8	5.7
충남	5.7	8.5	5.7	8.1	5.6	7.1	5.6	6.9
전북	4.2	6.7	3.9	5.9	3.9	5.4	3.8	5.1
전남	5.6	9.7	5.2	9.4	5.1	8.4	5.0	7.6
경북	5.8	7.5	5.7	7.4	5.5	6.6	5.5	6.0
경남	5.9	5.4	5.7	5.2	5.5	4.9	5.0	4.8
제주	4.6	4.0	4.3	3.8	4.1	3.7	3.7	4.0
전국	7.5	7.5	6.8	6.8	6.5	6.5	6.4	6.4

자료: 통계청, 「인구이동통계연보」, 각호.

2. 지역별 노동공급현황

가. 15세 이상 인구

◎ 지역별로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990)은

- 전국 평균은 74.3%이며
- 6대도시 중에서는 서울이 75.2%로 가장 높고, 대구(74.6%),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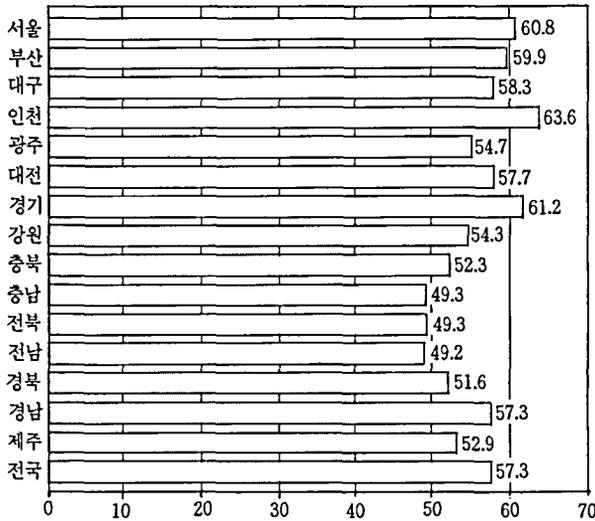
(74.4%)의 순이고 인천과 광주는 72.6%로 낮은 편임.

- 9개도시 중에서는 경북(75.9%), 충남(75.6%)이 높고, 경기와 경남(73.2%)이 낮음.

◎ 한편 기간노동력의 비중을 지역내 15세 이상 인구 중 25세 이상 54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지역간 편차가 심함.

- 인천이 63.6%로 가장 높고, 경기(61.2%), 서울(60.8%)의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57.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반면 충남과 전북(49.3%), 전남(49.2%)은 전국 평균(57.3%)을 훨씬 하회하여 이들 농업비중이 높은 지역의 고령인구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15세 이상 인구 중 25~54세 인구 비중: 1990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표 4〉 연령구성별 지역인구: 1990

(단위:천명, %)

	총인구	15세이상 인구	전체인구중 15세이상비중	25~54세 인구	5세이상 인구중 25~54세인구비중
서울	10,603	7,978	75.2	4,852	60.8
부산	3,796	2,825	74.4	1,693	59.9
대구	2,228	1,661	74.6	968	58.3
인천	1,816	1,319	72.6	839	63.6
광주	1,139	826	72.6	452	54.7
대전	1,049	769	73.3	443	57.7
경기	6,154	4,507	73.2	2,756	61.2
강원	1,580	1,178	74.6	640	54.3
충북	1,389	1,033	74.4	540	52.3
충남	2,013	1,522	75.6	750	49.3
전북	2,069	1,536	74.2	758	49.3
전남	2,507	1,859	74.1	915	49.2
경북	2,860	2,172	75.9	1,120	51.6
경남	3,672	2,688	73.2	1,539	57.3
제주	514	383	74.4	203	52.9
전국	43,390	32,256	74.3	8,469	57.3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나. 경제활동인구

◎ 지역별 노동공급 규모가 되는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인구의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제활동인구(1993)는 서울이 5,118천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부산, 경남 순임.
- 경제활동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도 251천명의 제주이며, 그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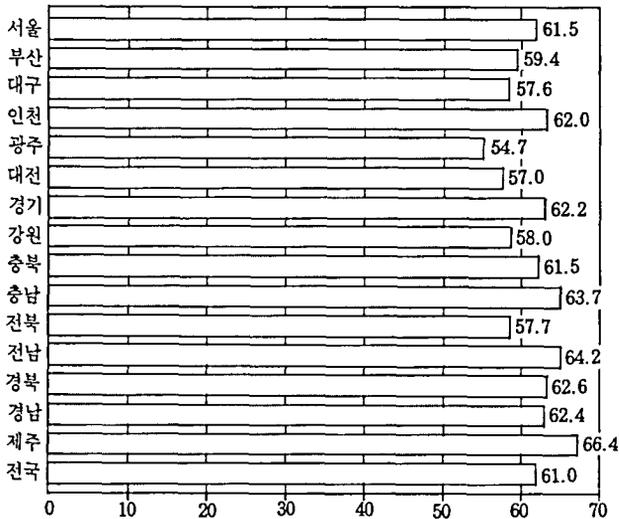
대전이 493천명, 광주가 498천명임.

- 전국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서울(25.9%), 경기(13.7%), 부산(8.7%), 경남(8.6%) 순임.
- 제주도는 비중이 1.3%에 그치고 있으며 대전과 광주도 2.5%에 불과함.

◎ 한편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제주가 66.4%로 가장 높고, 전남 64.2%, 충남 63.7% 순임.
- 경북, 경남, 경기, 인천, 서울 등도 경제활동참가율이 61%를 넘어 그 지역 인력의 노동시장 참가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정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경제활동참가

[그림 3]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 19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율이 54.7%에 그침. 또한 대전과 대구, 전북도 경제활동참가율이 57%대에 머뭄.

다.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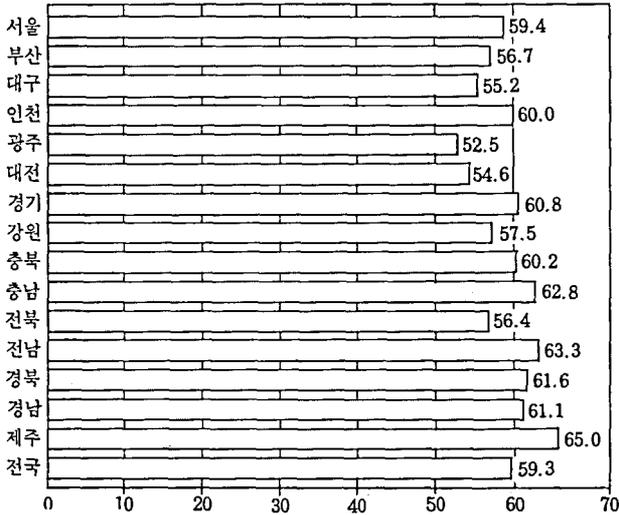
- ◎ 지역별 노동수요의 규모로 간주되는 취업자(1993)를 살펴보면
 - 서울이 4,942천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경남, 부산의 순으로 취업자가 많음.
 - 취업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역시 248천명의 제주이며, 대전(472천명)과 광주(478천명)순임.
 - 전국에서 각 지역이 차지하는 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서울이 25.7%로 가장 높고, 경기(13.8%), 경남(8.6%), 부산(8.5%) 순임.
 - 제주의 비중은 1.3%이며 대전과 광주는 모두 2.5%임.

- ◎ 한편 15세 이상 인구대비 취업자의 비율인 취업인구비율로 살펴보면
 - 제주가 6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남 63.3%, 충남 62.8% 순임.
 - 이들 지역의 취업인구비율이 높은 이유 역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제조업체 중심의 산업분포에 기인한 바가 큼.
 - 취업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떨어진 52.5%이며 대전 역시 54.6%로 두번째로 낮음.
 - 광주와 대전 지역의 취업인구비율이 낮은 이유는 인구대비 학생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임(인구대비 학생비중은 광주 29.7%, 대전 29.5%임).

라. 실업자

- ◎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격차인 실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 서울이 176천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76천명), 경기(62천명), 대구(41천명)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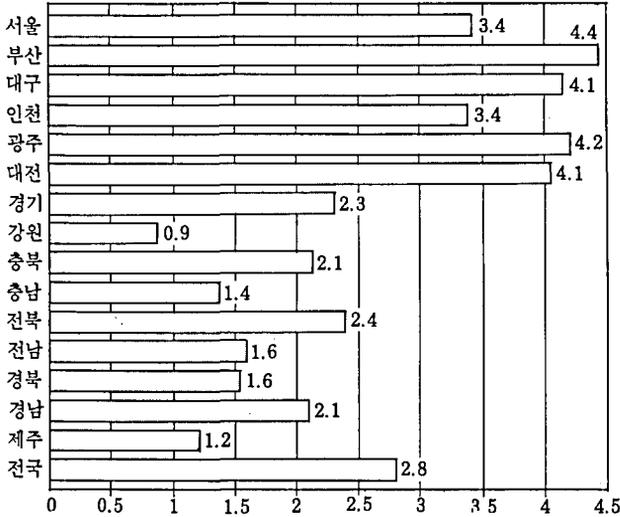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취업인구비율: 19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 실업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3천명의 제주이고 강원(6천명), 충남(12천명), 충북(13천명) 순임.
 - 지역별 비중은 서울이 31.9%, 부산이 13.8%, 경기가 11.2%, 대구가 7.4%임.
 - 제주와 강원의 실업자 비중은 각각 0.5%, 1.1%에 불과하며 충남과 충북도 각각 2.2%, 2.4%에 머물음.
- ◎ 지역별 실업 정도를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실업률로 살펴보면
- 부산이 4.4%로 가장 높으며, 광주 4.2%, 대구와 대전 4.1% 순으로 높음.
 - 실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0.9%에 불과하며 제주(1.2%), 충남(1.4%) 순으로 실업률이 낮음.
 - 전남과 경북도 실업률이 1.6%로 1%대의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였음. 이들 지역의 실업률이 낮은 이유는 제조업체 비중이 낮고 농림어업 비중이 높기 때문임.

[그림 5] 지역별 실업률: 19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표 5>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총괄: 1993

(단위: 천명, %)

지역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취업률	실업자	실업률
서울	5,118	61.5	4,942	59.4	176	3.4
부산	1,718	59.4	1,642	56.7	76	4.4
대구	994	57.6	953	55.2	41	4.1
인천	804	62.0	777	60.0	27	3.4
광주	498	54.7	478	52.5	21	4.2
대전	493	57.0	472	54.6	20	4.1
경기	2,712	62.2	2,650	60.8	62	2.3
강원	687	58.0	681	57.5	6	0.9
충북	607	61.5	594	60.2	13	2.1

〈표 5〉의 계속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자	취업률	실업자	실업률
충	남	880	63.7	868	62.8	12	1.4
전	북	880	57.7	860	56.4	21	2.4
전	남	1,134	64.2	1,117	63.3	18	1.6
경	북	1,286	62.6	1,266	61.6	20	1.6
경	남	1,694	62.4	1,658	61.1	36	2.1
제	주	251	66.4	248	65.6	3	1.2
전	국	19,754	61.0	19,203	59.3	551	2.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마.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 지역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에 게재되지 않아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의 자료, 즉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현황(1993)을 살펴보면

- 대구 지역은 총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93.7%에 달해 상용근로자 비중이 제일 높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은 2.8%로 매우 낮은 편임.
- 부산 지역 역시 상용근로자 비중이 92.2%로 높음.
- 대전 지역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86.2%로 가장 낮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11.6%에 달해 제일 높음.
- 충남 지역 역시 상용근로자 비중은 88.2%로 낮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9.3%에 달함.
-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과 전북(0.3%)이며, 개인업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1.7%)임.

〈표 6〉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1993

(단위: 명, %)

	총근로자	개인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유급임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서울	1,856,098 (100.0)	23,840 (1.3)	941 (0.1)	53,050 (2.9)	1,649,842 (88.9)	128,325 (6.9)
부산	466,858 (100.0)	6,879 (1.5)	168 (0.0)	7,751 (1.7)	430,528 (92.2)	21,532 (4.6)
대구	251,822 (100.0)	4,334 (1.7)	144 (0.1)	4,306 (1.7)	236,079 (93.7)	6,959 (2.8)
인천	313,258 (100.0)	4,050 (1.3)	957 (0.3)	6,662 (2.1)	286,768 (91.5)	14,821 (4.7)
광주	120,139 (100.0)	727 (0.6)	62 (0.1)	1,815 (1.5)	10,9871 (91.5)	7,664 (6.4)
대전	128,905 (100.0)	810 (0.6)	48 (0.0)	1,943 (1.5)	111,178 (86.2)	14,926 (11.6)
경기	921,661 (100.0)	11,195 (1.2)	672 (0.1)	15,230 (1.7)	838,702 (91.0)	55,862 (6.1)
강원	122,374 (100.0)	1,016 (0.8)	163 (0.1)	2,251 (1.8)	111,940 (91.5)	7,004 (5.7)
충북	158,935 (100.0)	1,072 (0.7)	109 (0.1)	2,210 (1.4)	145,060 (91.3)	10,484 (6.6)
충남	160,579 (100.0)	1,203 (0.7)	90 (0.1)	2,719 (1.7)	141,686 (88.2)	14,881 (9.3)
전북	172,562 (100.0)	2,828 (1.6)	528 (0.3)	2,380 (1.4)	156,515 (90.7)	10,311 (6.0)
전남	152,368 (100.0)	1,834 (1.2)	127 (0.1)	2,176 (1.4)	135,523 (88.9)	12,708 (8.3)
경북	329,172 (100.0)	2,745 (0.8)	201 (0.1)	4,471 (1.4)	308,020 (93.6)	13,735 (4.2)
경남	532,852 (100.0)	3,811 (0.7)	224 (0.0)	5,866 (1.1)	501,216 (94.1)	21,735 (4.1)
제주	46,254 (100.0)	970 (2.1)	36 (0.1)	819 (1.8)	41,854 (90.5)	2,575 (5.6)
전국	5,733,837 (100.0)	67,314 (1.2)	4,470 (0.1)	113,649 (2.0)	5,204,882 (90.1)	343,522 (6.0)

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임.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3.

3. 지역별 노동의 질

가. 취업자의 교육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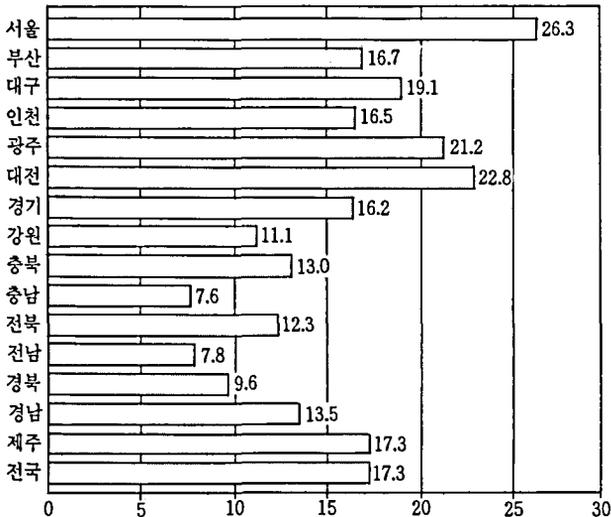
◎ 축적된 인적자원의 질을 취업자의 교육수준으로 살펴보면

- 전체 취업자의 교육수준(1993) 분포는 국졸 이하 23.8%, 중졸 17.0%, 고졸 41.9%, 대졸 이상 17.3%임.

◎ 지역별로 취업자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 국졸 이하 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0.7%)임. 충남(49.9%), 경북(42.8%), 전북(41.6%)도 40% 이상으로 높음.
- 중졸 취업자 비중은 대구(20.5%), 부산(20.0%), 강원(20.1%)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높음.

[그림 6]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 199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표 7〉 지역별·교육정도별 취업자: 1993

(단위 : 천명, %)

	전 체	국졸 이하	중 졸	고 졸	대졸 이상
서울	4,943 (100.0)	503 (10.2)	734 (14.8)	2,406 (48.7)	1,300 (26.3)
부산	1,642 (100.0)	277 (16.9)	328 (20.0)	762 (46.4)	275 (16.7)
대구	953 (100.0)	151 (15.8)	195 (20.5)	425 (44.6)	182 (19.1)
인천	777 (100.0)	108 (13.9)	146 (18.8)	395 (50.8)	128 (16.5)
광주	477 (100.0)	81 (17.0)	77 (16.1)	218 (45.7)	101 (21.2)
대전	473 (100.0)	84 (17.8)	84 (17.8)	197 (41.6)	108 (22.8)
경기	2,650 (100.0)	485 (18.3)	458 (17.3)	1,278 (48.2)	429 (16.2)
강원	682 (100.0)	242 (35.5)	137 (20.1)	227 (33.3)	76 (11.1)
충북	594 (100.0)	224 (37.7)	100 (16.8)	193 (32.5)	77 (13.0)
충남	867 (100.0)	433 (49.9)	152 (17.5)	216 (24.9)	66 (7.6)
전북	859 (100.0)	357 (41.6)	133 (15.5)	263 (30.6)	106 (12.3)
전남	1,117 (100.0)	566 (50.7)	178 (15.9)	286 (25.6)	87 (7.8)
경북	1,266 (100.0)	542 (42.8)	221 (17.5)	381 (30.1)	122 (9.6)
경남	1,658 (100.0)	461 (27.8)	279 (16.8)	694 (41.9)	224 (13.5)
제주	248 (100.0)	64 (25.8)	41 (16.5)	100 (40.3)	43 (17.3)
전국	19,962 (100.0)	4,576 (23.8)	3,262 (17.0)	8,586 (41.9)	3,538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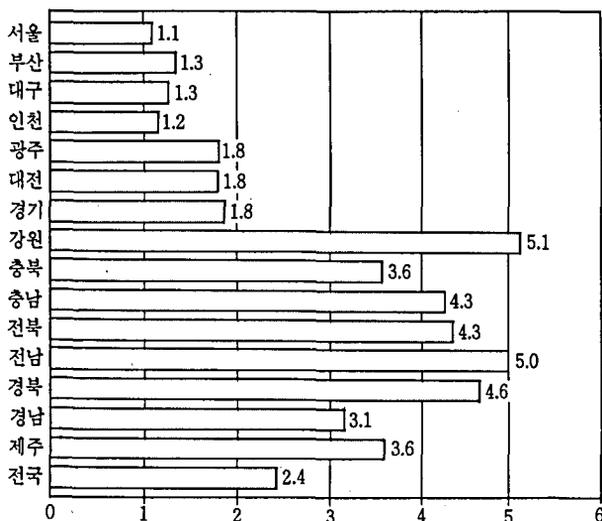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3.

- 고졸 취업자 비중은 인천(50.8%)이 제일 높고, 서울(48.7%), 경기(48.2%) 순임.
- 대졸 취업자 비중은 서울이 26.3%로 타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대전 지역도 22.8%로 높고, 광주(21.2%), 대구(19.1%)도 전국 평균(17.3%) 이상임. 반면 충남(7.6%), 전남(7.8%) 지역은 매우 낮음.

나. 인구대비 교육기관의 수

- ◎ 인적자원의 질은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을 통하여도 축적되는데 우선 학교교육의 양과 질을 살펴보면
 - 총교육기관(10,606개)의 12.6%인 1,338개가 경기 지역에 분포하며 서울 지역에는 11.0%인 1,167개가 분포하여 전체 교육기관의 23.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경북 1,276개(12.0%), 경남 1,191개(11.2%), 전남 1,121개(10.6%)가 분포함.
- ◎ 비록 학교의 규모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인구대비 초·중·고등학교수 비중[(초·중·고등학교수÷지역인구)×10,000]을 살펴보면
 - 강원 지역이 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4.9), 경북(4.5) 순으로 나타남.
 - 서울(1.0), 인천(1.1), 부산·대구(1.3) 등 대도시는 매우 낮음.
- ◎ 인구대비 총교육기관수 비중[(총학교수÷인구)×10,000] 역시 강원 지역이 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남(5.0), 경북(4.6) 순으로 나타남.
 -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1.1)이며, 인천(1.2), 부산과 대구(1.3) 순으로 나타남.

[그림 7] 지역별 인구대비 교육기관 비중: 1994



주: (총교육기관수 ÷ 인구) × 10,000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감』, 1994.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다. 인구대비 총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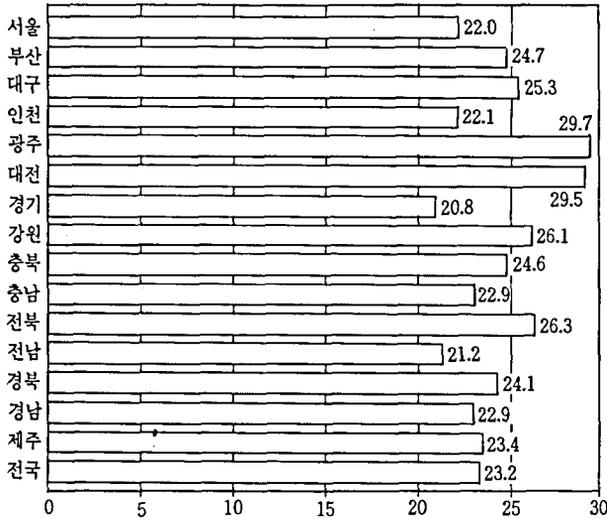
◎ 전국 총학생수 중 지역별 비중(1994)을 살펴보면

- 서울 22.8% (2,356천명), 경기 14.7% (1,517천명)로 전체 학생의 37.5%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그리고 부산(938천명), 경남(868천명), 경북(662천명) 순임.

◎ 한편 현재 학교교육을 통하여 축적되고 있는 인적자원의 정도를 인구대비 총학생수 비중[(총학생수 ÷ 지역인구) × 100]으로 살펴보면

- 광주, 대전 지역이 각각 29.7%, 29.5%로 가장 높음.
- 경기(20.8%), 전남(21.2%), 서울(22.0%), 인천(22.1%) 지역은 낮은 편임.

[그림 8] 지역별 인구대비 총학생수 비중: 1994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감』, 1994.

라. 인구대비 고등교육기관 및 공업계 고등학교 비중

◎ 공업계 고등학교 분포현황(1994)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 총 161개의 공업고등학교 중 서울 지역에 28개, 경북과 경기 지역에 각각 19개, 17개 분포함.
- 인구대비 분포현황은 경북이 6.91로 가장 높고, 충북·충남도 높은 편이나 서울·경기 지역은 2.61, 2.34로 낮음.
- 인구대비 공업계 고등학교 재학생 비중은 대구 지역이 제일 높고(9.02), 부산(8.40), 충북(8.53), 대전(8.45) 지역도 높은 편임.
- 반면 강원(4.39), 전남(4.90) 지역은 제일 낮게 나타났음.

◎ 인구대비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수 비중[(전문대+4년제 대학수)÷지역인구×100,000]으로 고등교육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 광주 지역이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0.97), 대전(0.95)

도 높게 나타남.

- 반면 경남(0.42), 인천(0.43), 서울(0.48) 등은 낮게 나타남.

마. 사설학원 의존현황

◎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교육을 통한 인적자원의 계발을 6대도시의 사설학원수 현황(1993)으로 살펴보면

- 문리계 학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21.2%)이며, 인천의 경우는 4.9%에 그쳐 제일 낮고, 서울(7.0%), 부산(9.0%) 순으로 지역간 차이가 뚜렷함.
- 기술계 학원의 비중은 대구(17.9%)가 제일 높고, 광주(12.0%), 인천(11.6%)이 낮음.
- 전반적으로 대구, 광주 등 지방도시일수록 인문계 학원의 비중이 높음.

◎ 6대도시의 지역내 사설학원수 대비 총교육기관 비중(학원수÷교육기관수)을 살펴보면

- 인천이 10.4로 가장 높고, 서울(10.3), 부산(9.5), 대구(8.3), 광주(7.5), 대전(7.0) 순으로 사회교육기관이 발달되어 있음.

◎ 6대도시의 학교학생수 대비 학원수강생 비중[(학원수강생÷학교학생수)×100]을 살펴보면

- 서울이 32.0%로 가장 높고, 인천(31.8%), 대구(28.5%), 광주(23.9%), 대전(21.6%), 부산(10.9%) 순임.

◎ 6대도시의 학교교원수 대비 학원강사수 비중[(학원강사수÷학교교원수)×100]은

- 인천이 32.7%로 가장 높고 대구(31.5%), 대전(31.1%), 서울(30.9%), 광주(28.5%), 부산(12.4%)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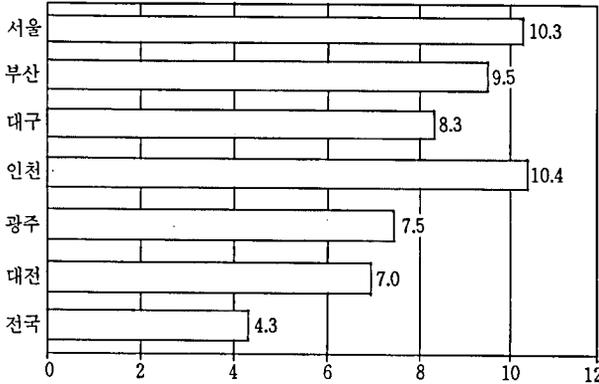
〈표 8〉 6대도시 사설학원 및 사설학원 의존 현황: 1993

(단위: 개, 명,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학원수	문리계	8,424 (7.0)	433 (9.0)	344 (14.1)	125 (4.9)	348 (21.2)	223 (15.6)	4,902 (10.6)
	기술계	1,693 (14.1)	599 (12.4)	436 (17.9)	294 (11.6)	197 (12.0)	214 (14.9)	6,349 (13.8)
	예능계	3,863 (32.2)	1,445 (30.0)	537 (22.0)	947 (37.3)	469 (28.6)	488 (34.0)	15,687 (34.1)
	가정계	27 (0.2)	19 (0.4)	9 (0.4)	6 (0.2)	2 (0.1)	6 (0.4)	212 (0.5)
	사무계	5,557 (46.4)	2,321 (48.2)	1,112 (45.6)	1,166 (45.9)	623 (38.0)	503 (35.1)	18,883 (41.0)
총학원수(A)		11,982 (100.0)	4,817 (100.0)	2,438 (100.0)	2,538 (100.0)	1,639 (100.0)	1,434 (100.0)	46,033 (100.0)
총교육기관수(B)		1,167	510	295	245	218	206	10,606
A/B		10.3	9.5	8.3	10.4	7.5	7.0	4.3
학원 수강자수(C)		753,508	102,560	161,871	148,922	86,363	73,528	2,697,991
학원 이수자수		3,048,335	162,016	752,863	234,391	438,259	203,064	7,786,586
학교학생수(D)		2,356,211	938,188	568,900	467,812	360,925	340,215	10,326,422
C/D×100		32.0	10.9	28.5	31.8	23.9	21.6	26.1
학원강사수(E)		21,411	3,426	5,133	4,419	3,019	2,847	79,422
학교교원수(F)		69,236	27,659	16,308	13,534	10,608	9,142	335,935
E/F×100		30.9	12.4	31.5	32.7	28.5	31.1	23.6
강의실수		26,519	6,990	4,717	5,871	3,816	3,175	90,188

주: 학교교원수(F)는 초·중고 교원임.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그림 9] 6대도시의 시설학원/총교육기관수 비중: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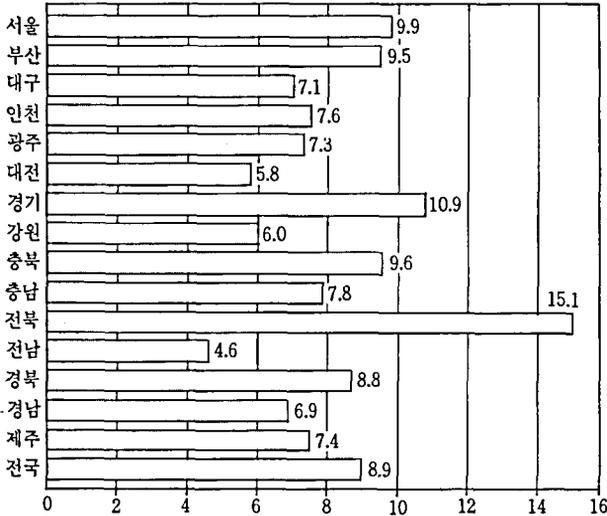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교육부, 『문교통계연감』, 1994.

바. 고교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

- ◎ 학교교육에 의해 계발된 인적자원이 활용되는 측면을 고교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상황(1993)으로 살펴보면
 - 진학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광주(56.2%)이며, 대전(53.5%), 대구(52.9%) 지역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6대도시 고졸자의 진학률이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은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낮게 나타남.
 - 반면 충남(28.3%), 경기(29.7%)는 진학률이 매우 낮음.
 - 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49.5%), 경기(44.5%), 충남(44.2%)임. 6대도시 중의 취업률은 9개도보다 낮은데 인천(38.5%), 부산(37.1%)의 취업률이 높은 편임.
 - 무직자 비율이 전국 평균(8.9%)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9.9%), 부산(9.5%), 충북(9.6%), 경기(10.9%)임. 특히 전북 지역의 무직자 비율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15.1%에 달해, 이 지역의 고졸 인력 활용이 원활치 못함을 알 수 있음.

[그림 10] 지역별 고교졸업자 중 무직자 비율: 1993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 ◎ 특히 지역내 인구대비 대학생수 비중과 지역내 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을 비교하면 두뇌유출(brain drain) 정도를 짐작할 수 있음.
-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지역내 인구대비 대학생수 비중(대학생/인구 × 100)이 7.4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전국 평균 3.7) 지역내 대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1.2%에 머물러 타지역에 비해 고급인력 유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로 취업자의 학력수준이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노동력의 질도 상당히 이질적임을 알 수 있음.

〈표 9〉 지역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상황: 1993

(단위: 명, %)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서 울		180,636 (100.0)	64,924 (35.9)	49,639 (27.5)	17,852 (9.9)
부 산		65,799 (100.0)	25,628 (38.9)	24,390 (37.1)	6,252 (9.5)
대 구		37,712 (100.0)	19,965 (52.9)	10,848 (28.8)	2,681 (7.1)
인 천		24,222 (100.0)	8,226 (34.0)	9,320 (38.5)	1,832 (7.6)
광 주		29,738 (100.0)	16,700 (56.2)	8,466 (28.5)	2,185 (7.3)
대 전		18,971 (100.0)	10,147 (53.5)	4,962 (26.2)	1,102 (5.8)
경 기		74,952 (100.0)	22,290 (29.7)	33,363 (44.5)	8,134 (10.9)
강 원		28,487 (100.0)	11,900 (41.8)	11,531 (40.5)	1,698 (6.0)
충 북		23,423 (100.0)	9,066 (38.7)	9,443 (40.3)	2,257 (9.6)
충 남		34,890 (100.0)	9,885 (28.3)	15,434 (44.2)	2,735 (7.8)
전 북		41,500 (100.0)	15,725 (37.9)	14,824 (35.7)	6,275 (15.1)
전 남		42,418 (100.0)	13,045 (30.8)	21,012 (49.5)	1,957 (4.6)
경 북		52,273 (100.0)	21,347 (40.8)	18,693 (35.8)	4,610 (8.8)
경 남		57,552 (100.0)	23,454 (40.8)	21,177 (36.8)	3,947 (6.9)
제 주		9,878 (100.0)	4,965 (50.3)	2,900 (29.4)	734 (7.4)
전 국		722,451 (100.0)	277,267 (38.4)	256,002 (35.4)	64,251 (8.9)

주: 졸업자 중 입대자와 未詳은 제외하였음.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사.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

- ◎ 교육의 질(quality)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원 1인당 학생수(초중고 학생수 ÷ 초중고 교직원수) 비중(1994)을 살펴보면
- 전반적으로 6대도시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9개도의 그것을 훨씬 상회함.
 -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제일 많은 곳은 인천(32명)으로 제일 낮은 전남(19명)에 비해 13명이나 많음.
 - 서울과 대구는 30명이며 광주가 27명으로 6대도시 중 제일 낮음.
 - 9개도 중에서는 경남이 25명으로 제일 높고, 전남(19명), 강원(20명)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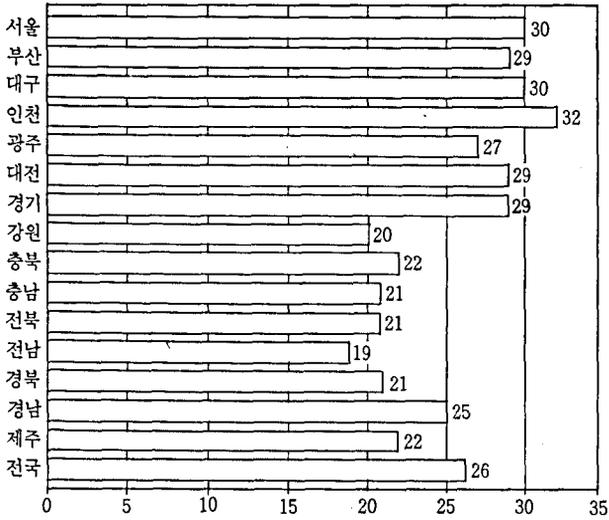
〈표 10〉 지역별 교원 1인당 학생수: 1994

(단위: 명)

		초중고 학생수	초중고 교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서	울	2,011,494	68,112	30
부	산	773,878	26,572	29
대	구	469,901	15,522	30
인	천	408,430	12,888	32
광	주	271,608	9,969	27
대	진	254,810	8,675	29
경	기	1,279,590	44,021	29
강	원	304,606	15,601	20
충	북	276,253	12,403	22
충	남	363,344	17,489	21
전	북	409,388	19,446	21
전	남	436,852	23,544	19
경	북	539,466	25,875	21
경	남	768,295	31,214	25
제	주	100,962	4,604	22
-----		-----		-----
전	국	8,668,877	335,935	26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감』, 1994.

〔그림 11〕 지역별 교원1인당 학생수: 1994



자료: 교육부, 『문교통계연감』, 1994.

Ⅲ. 인력의 수요

1. 지역별 사업체 분포 현황

가. 총사업체수

- ◎ 인력수요의 지역별 분포는 사업체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를 살펴 보면
 - 1991년 현재 총사업체의 27.4%인 581,092개의 사업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며
 - 그 다음으로 경기지역에 276,012개(13.0%) 분포되어 있어
 - 전체 사업체의 44.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다른 어느 항목보다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 부산, 경남 지역도 전체의 9.7%, 8.0%를 차지하여 높은 편임.
 - 광주(2.8%), 대전(2.7%), 충북(3.0%), 충남과 강원(3.6%) 지역의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음.
- ◎ 각 지역의 인구를 고려한 총사업체수 비중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 $[(\text{총사업체수} \div \text{인구}) \times 100]$ 을 구해 보면
 - 대구(5.51)가 가장 높고, 서울(5.48), 대전(5.43), 부산(5.41), 광주(5.23) 순으로 6대도시가 9개도에 비해 높음.
 - 그러나 충남(3.82), 전남(4.15), 전북(4.27) 등은 전국 평균(4.89) 이하로 낮음.

〈표 11〉 지역내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 1991

(단위: 개, 명, %)

		총사업체	인 구	인구대비사업체수비중
서 울		581,092	10,603,250	5.48
부 산		205,181	3,795,892	5.41
대 구		122,873	2,227,979	5.51
인 천		87,708	1,816,328	4.83
광 주		59,505	1,138,717	5.23
대 전		56,934	1,049,122	5.43
경 기		276,012	6,154,359	4.48
강 원		76,424	1,579,859	4.84
충 북		64,132	1,389,222	4.62
충 남		76,887	2,013,270	3.82
전 북		88,382	2,069,378	4.27
전 남		103,931	2,506,944	4.15
경 북		126,246	2,860,109	4.41
경 남		168,891	3,671,509	4.60
제 주		24,049	514,436	4.67
전 국		2,119,647	43,390,374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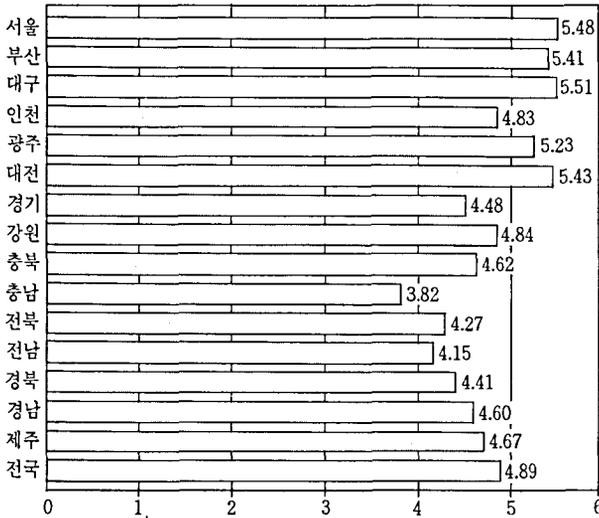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및 『지역통계연보』, 1992.

나. 규모별 사업체수 분포

◎ 한편 전체 사업체수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의 규모별 분포현황(1993)을 살펴보면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서울(37.1%), 경기(14.4%), 경남(9.3%), 부산(8.2%)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 광주(1.9%), 전남(1.8%), 전북(2.1%) 지역은 매우 낮음.

[그림 12] 지역내 인구대비 총사업체수 비중: 1991



자료: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및 『지역통계연보』, 1993.

◎ 지역내에서 규모별 사업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 서울의 경우 5~49인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0.3%를 차지하여 영세규모 사업체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제일 높음.
- 전북(89.9%), 전남(88.9%) 역시 영세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편임.

◎ 대전 지역은 총사업체 중 50~299인 사업체 비중이 21.6%에 달해 전국 평균 12.2%를 훨씬 상회하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광주(18.0%), 경남(17.2%) 지역도 타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지역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2.5%), 경남(2.2%)임.

- 반면 전남·전북 지역은 지역내 사업체 중 300인 이상 사업체 비중이 1% 미만인 0.7%로 나타나 타지역에 비해 훨씬 낮음.

〈표 12〉 지역내 규모별사업체수: 1993

(단위: 개, %)

		5인 이상 사업체수	영세규모 (5~49인)	중소규모 (50~299인)	대규모 300인 이상
서 울		58,147 (100.0)	52,513 (90.3)	4,873 (8.4)	761 (1.3)
부 산		11,646 (100.0)	9,775 (83.9)	1,703 (14.6)	168 (1.4)
대 구		7,622 (100.0)	6,524 (85.6)	1,036 (13.6)	62 (0.8)
인 천		8,091 (100.0)	6,938 (85.7)	1,030 (12.7)	123 (1.5)
광 주		2,771 (100.0)	2,235 (80.7)	498 (18.0)	38 (1.4)
대 전		2,456 (100.0)	1,864 (75.9)	530 (21.6)	62 (2.5)
경 기		23,011 (100.0)	19,283 (83.8)	3,432 (14.9)	296 (1.3)
강 원		3,380 (100.0)	2,856 (84.5)	490 (14.5)	34 (1.0)
충 북		3,826 (100.0)	3,159 (82.6)	622 (16.3)	45 (1.2)
충 남		3,770 (100.0)	3,076 (81.6)	633 (16.8)	61 (1.6)
전 북		6,369 (100.0)	5,723 (89.9)	603 (9.5)	43 (0.7)
전 남		4,814 (100.0)	4,278 (88.9)	500 (10.4)	36 (0.7)
경 북		6,917 (100.0)	5,703 (82.4)	1,087 (15.7)	127 (1.8)
경 남		8,878 (100.0)	7,164 (80.7)	1,523 (17.2)	191 (2.2)
제 주		1,856 (100.0)	1,626 (87.6)	225 (12.1)	5 (0.3)
전 국		153,554 (100.0)	132,717 (86.4)	18,785 (12.2)	2,052 (1.3)

주: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3.

◎ 고용흡수력이 높은 10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전국 분포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표 13>과 같음.

-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1976년 56.9%, 1980년 53.0%, 1993년 49.2%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영남 지역은 1976년 32.1%, 1980년 35.3%로 증가하였으나 1993년 33.9%로 감소함.
- 충청, 전라 지역은 그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음. 2000년대에는 이 지역이 성장잠재력이 제일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규모 제조업체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

<표 13> 지역별 100인 이상 제조업체수 추이

(단위: 개, %)

	1976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수 도 권	1,538 (56.9)	1,846 (53.0)	2,098 (51.0)	2,396 (58.3)	2,155 (52.4)	2,142 (52.1)	2,023 (49.2)
영 남	867 (32.1)	1,229 (35.3)	1,485 (36.1)	1,709 (41.6)	1,616 (39.3)	1,463 (35.6)	1,394 (33.9)
충 청	138 (5.1)	203 (5.8)	217 (5.3)	367 (8.9)	369 (9.0)	383 (9.3)	406 (9.9)
전 라	115 (4.3)	160 (4.6)	186 (4.5)	263 (6.4)	256 (6.2)	246 (6.0)	231 (5.6)
전 국	4,112 (100.0)	4,293 (100.0)	4,454 (100.0)	4,788 (100.0)	4,016 (100.0)	3,486 (100.0)	2,703 (100.0)

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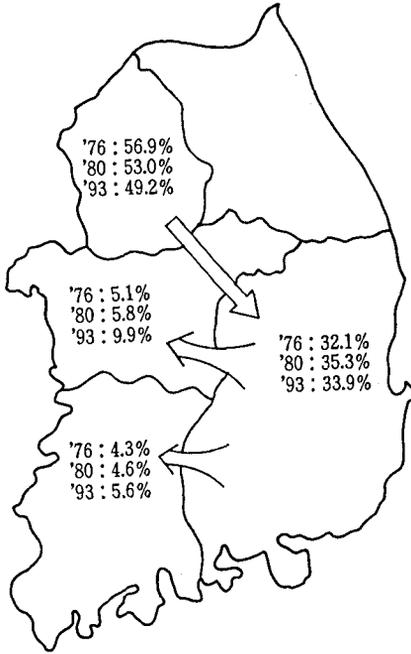
영남은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충청은 대전, 충북, 충남 지역.

전라는 광주, 전북, 전남 지역.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호.

[그림 13] 지역별 100인 이상 제조업체수 비중 추이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호.

다. 산업별 사업체 분포 현황

◎ 지역내 분포하는 산업별 사업체수(1993)를 살펴보면

- 6대도시 중 농림어업사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0.4%) 임.
- 9개도 중에서는 제주가 26.8%로 가장 높고 전남(16.5%), 전북 (7.7%) 순임.
-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은 농림어업사업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 전 국 농림어업사업체 중 각각 20.8%, 33.3%, 20.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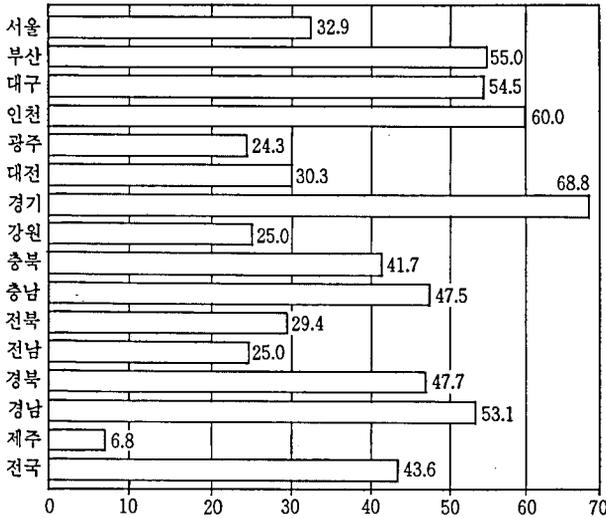
〈표 14〉 지역별·산업별 사업체수 분포 현황: 1993

(단위: 개, %)

	전 체	농 립 어 업	광공업	전 기 가 수 도	건설업	도 소 매 및 음식 숙 박업	운 수 창 고 통신업	금 용 및 보험업	개인 및 사회서 비 스업
서 울	58,147 (100.0)	159 (0.3)	19,126 (32.9)	31 (0.1)	6,097 (10.5)	15,958 (27.4)	2,433 (4.2)	11,105 (19.1)	3,238 (5.6)
부 산	11,646 (100.0)	28 (0.2)	6,409 (55.0)	12 (0.1)	751 (6.4)	1,655 (14.2)	855 (7.3)	1,295 (11.1)	641 (5.5)
대 구	7,622 (100.0)	12 (0.2)	4,157 (54.5)	11 (0.1)	514 (6.7)	1,098 (14.4)	298 (3.9)	1,052 (13.8)	480 (6.3)
인 천	8,091 (100.0)	12 (0.1)	4,858 (60.0)	10 (0.1)	550 (6.8)	859 (10.6)	388 (4.8)	973 (12.0)	441 (5.5)
광 주	2,771 (100.0)	5 (0.2)	672 (24.3)	8 (0.3)	456 (16.5)	563 (20.3)	208 (7.5)	574 (20.7)	285 (0.3)
대 전	2,456 (100.0)	11 (0.4)	744 (30.3)	8 (0.3)	266 (10.8)	537 (21.9)	213 (8.7)	492 (20.0)	185 (7.5)
경 기	22,011 (100.0)	126 (0.6)	15,151 (68.8)	41 (0.2)	1,548 (7.0)	924 (4.2)	782 (3.6)	2,251 (10.2)	1,188 (5.4)
강 원	3,380 (100.0)	61 (1.8)	845 (25.0)	24 (0.7)	374 (11.1)	664 (19.6)	352 (0.4)	709 (21.0)	351 (0.4)
충 북	3,826 (100.0)	26 (0.7)	1,595 (41.7)	19 (0.5)	432 (11.3)	438 (11.4)	297 (7.8)	636 (16.6)	383 (0.0)
충 남	3,770 (100.0)	58 (1.5)	1,789 (47.5)	17 (0.5)	437 (11.6)	328 (8.7)	337 (8.9)	536 (14.2)	268 (7.1)
전 북	6,369 (100.0)	493 (7.7)	1,881 (29.5)	25 (0.4)	854 (13.4)	1,022 (16.0)	441 (6.9)	1,047 (16.4)	606 (9.5)
전 남	4,814 (100.0)	792 (16.5)	1,204 (25.0)	27 (0.6)	625 (13.0)	448 (9.3)	569 (1.8)	810 (16.8)	339 (7.0)
경 북	6,917 (100.0)	43 (0.6)	3,298 (47.7)	37 (0.5)	586 (8.5)	755 (10.9)	494 (7.1)	1,140 (16.5)	564 (8.2)
경 남	8,878 (100.0)	52 (0.6)	4,712 (53.1)	34 (0.4)	655 (7.4)	850 (9.6)	781 (8.8)	1,253 (14.1)	541 (6.1)
제 주	1,856 (100.0)	497 (26.8)	126 (6.8)	6 (0.3)	293 (15.8)	322 (17.3)	172 (9.3)	302 (16.3)	138 (7.4)
전 국	152,833 (100.0)	2,406 (1.6)	66,567 (43.6)	315 (0.2)	14,579 (9.5)	26,421 (17.3)	8,722 (5.7)	24,175 (15.8)	9,648 (6.3)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3.

[그림 14] 지역별 광공업 사업체 비중: 1993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3.

- ◎ 6대도시 중 광공업체(광업+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곳은 인천(60.0%), 부산(55.0%), 대구(54.5%)임.
 - 반면 광주, 대전은 24.3%, 30.3%로 매우 낮음.
 - 9개도 중에서는 경기(68.8%)의 지역내 광공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 경남(53.1%), 경북(47.7%) 순임.
 - 강원과 전남(25.0%), 전북(29.5%)은 지역내 전체 사업체 중 광공업체의 비중이 30% 이하로 매우 낮음.

- ◎ 지역내 사업체 중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비중이 높은 곳은 서울(27.4%), 광주(20.3%), 대전(21.9%)임.
 - 반면 경기 지역은 4.2%만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체로 나타나 도소매 및 숙박업체 비중이 제일 낮음.

- ◎ 지역내 사업체의 분포는 전라, 제주의 경우 농림어업체분포가 압도적이며 경상, 경기도는 광공업체 분포가 뚜렷하여 지역별로 사업체 분포의 이질성이 뚜렷함.

2. 지역별 공업단지 현황

가. 공업단지 현황

- ◎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정은 공단 중심의 공업화전략을 채택하여 왔는데 공업단지 현황(1993)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 총조성면적 중 경남 지역의 차지비중이 22.8%로 가장 높음.
 - 종업원수(27.6%), 생산액(34.5%), 수출액(48.3%)면에서도 경남 지역이 제일 높음.
 - 그러나 이 지역의 입주사업체수 비중은 9.6%에 머물러 대규모 사업체가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음을 반영.
 - 전남 지역의 총공단조성 비중은 12.3%에 달하나 입주사업체수(1.8%), 종업원수(3.8%) 비중은 낮은 편임.
- ◎ 지역 면적 대비 조성공업단지 면적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 6대 도시인 부산(5.1%), 인천(4.1%), 대구(3.7%) 지역의 비중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
 - 9개도 중에서는 경남이 0.9%로 가장 높고, 경기, 전북, 전남(0.5%)의 비중도 높은 편임. 강원 지역은 0.1%로 제일 낮음.
- ◎ 조성(계획)중인 공단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충남(34,764천m²), 전북(26,589천m²), 전남(41,466천m²) 지역임.
- ◎ 입주사업체수 대비 조성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충남(231km²), 전남(198km²), 전북(94km²) 순임.
 - 반면 서울(5km²), 인천(6km²)은 매우 낮아 수도권 지역 공단의 과밀화현상을 보여줌.
- ◎ 지역내 사업체수 대비 공단입주 사업체수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 부산이 28.0%로 가장 높고, 인천(27.9%), 대구(25.4%), 광주

〈표 15〉 지역면적 대비 공단면적 비중: 1993

	총조성(1,000m ²)			면적 (Km ²)	지역면적 대비 공단 면적비중(%)
	개발완료	조성(계획)중	소계		
서울	2,137	0	2,137	605	0.4
부산	12,584	14,537	27,121	529	5.1
대구	11,877	4,810	16,687	456	3.7
인천	13,744	0	13,744	339	4.1
광주	7,488	7,068	14,556	501	2.9
대전	2,491	6,163	8,654	537	1.6
경기	20,923	28,202	49,125	10,773	0.5
강원	1,447	12,225	13,672	16,897	0.1
충북	6,416	12,759	19,175	7,436	0.3
충남	2,650	34,764	37,414	8,323	0.4
전북	16,031	26,589	42,620	8,041	0.5
전남	14,253	41,466	55,719	11,824	0.5
경북	39,620	9,042	48,662	19,448	0.3
경남	50,561	52,720	103,281	11,777	0.9
전국	201,682	250,885	452,567	99,312	0.5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공업단지현황』, 1994.

(22.6%) 순임.

- 9대도 중에서는 경북(17.5%), 경남(17.0%)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강원(4.6%), 충남(4.3%), 충북(5.6%) 지역은 전국 평균치인 10.3%에 훨씬 못미침.

◎ 입주사업체수 대비 종업원수 비중을 살펴보면

- 경남(165명), 충북(149명), 서울(136명) 순으로 높음.
- 반면 부산은 7명으로 가장 낮으며 인천(28명), 광주(34명)도 낮은 편임.

◎ 입주사업체수 대비 생산액 비중을 살펴보면

- 전남 지역이 31,184백만원으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가장 낮은 부산 지역의 67.8배에 달함).
- 경남(18,913백만원), 충북(16,186백만원) 지역도 높은 편임.
- 그러나 부산(460백만원), 충남(907백만원) 지역은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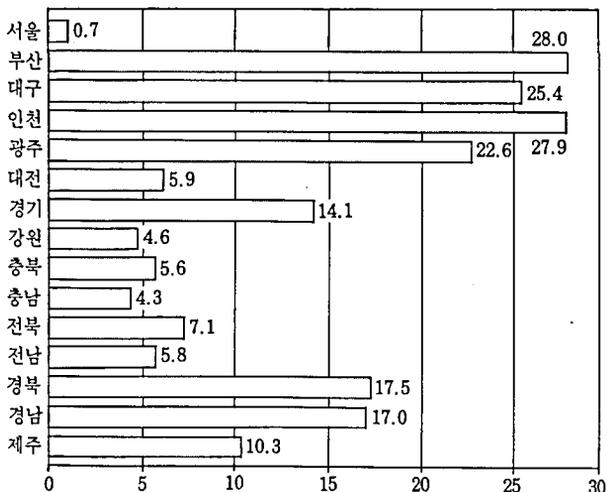
〈표 16〉 전국 공업단지 현황: 1993

	총조성면적 (1,000m ²) A	입주사업 체수(개) B	(A)/(B)	종업원수 (명) C	(C)/(B)	생산액 (백만원) D	(D)/(B)
서울	2,137	409	5	55,686	136	4,552,882	11,132
부산	27,121	3,257	8	21,609	7	1,497,695	460
대구	16,687	1,939	9	87,045	45	2,661,871	1,373
인천	13,744	2,261	6	63,379	28	4,064,775	1,798
광주	14,556	627	23	21,540	34	2,567,150	4,094
대전	8,654	144	60	10,562	73	1,111,180	7,717
경기	49,125	3,110	16	152,674	49	9,073,620	2,918
강원	13,672	156	88	6,600	42	183,839	1,178
충북	19,175	214	90	31,967	149	3,463,885	16,186
충남	37,414	162	231	10,305	64	146,961	907
전북	42,620	454	94	29,878	66	2,722,149	5,996
전남	55,719	281	198	33,963	121	8,762,567	31,184
경북	48,662	1,211	40	125,928	104	13,367,412	11,038
경남	103,281	1,509	68	248,292	165	28,539,422	18,913
전국	452,567	15,734	29	899,428	57	82,715,408	5,257

주: 총조성면적=개발완료+조성중.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공업단지현황』, 1994.

[그림 15] 지역내 5인 이상 사업체수 대비 공단입주사업체수 비중: 1993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4.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공업단지 현황』, 1994.

나. 지역내 가용인력 현황

- ◎ 공단내 종업원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지역내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수를 제외한 가용인력 현황(1993)을 살펴보면
 - 15세 이상 인구 중 가용인구 비중이 제일 높은 지역은 광주(47.5%)임.
 - 대전(45.4%), 대구(44.8%), 전북(43.6%), 부산(43.3%)의 순으로 주로 6대 도시의 가용인력비중이 높음.
 - 제주(34.4%), 전남(36.7%), 충남(37.2%), 경북(38.4%)은 가용인구비중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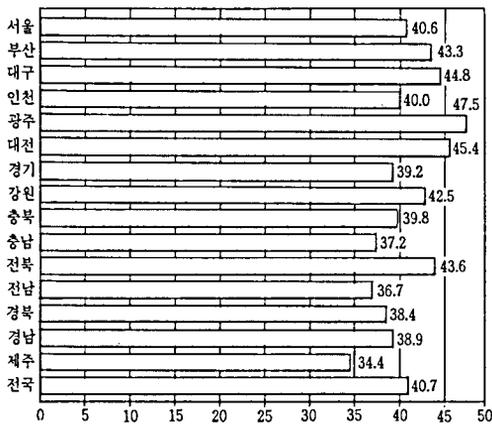
〈표 17〉 지역별 가용인구 현황: 1993

(단위: 천명, %)

		15세이상 인구	취업자	가용인구	15세 이상 인구 대비가용인구비중
서울	울산	8,322	4,942	3,380	40.6
부산	대구	2,894	1,642	1,252	43.3
대구	인천	1,726	953	773	44.8
인천	광주	1,296	777	519	40.0
광주	대전	911	478	433	47.5
대전	전남	865	472	393	45.4
경기	강원	4,358	2,650	1,708	39.2
강원	충북	1,185	681	504	42.5
충북	충남	987	594	393	39.8
충남	전북	1,382	868	514	37.2
전북	전남	1,524	860	664	43.6
전남	경북	1,766	1,117	649	36.7
경북	경남	2,054	1,266	788	38.4
경남	제주	2,715	1,658	1,057	38.9
제주	전국	378	248	130	34.4
전국		32,361	19,203	13,158	40.7

주: 가용인구=15세 이상 인구-취업자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그림 16〕 지역별 가용인구 비중: 1993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3. 지역별 도시계획 현황

◎ 지역별 도시계획 적용 현황(1992)을 살펴보면

- 전체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 지역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전남(7.9%), 인천(6.9%), 경북(6.0%)임.
- 녹지 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광주(89.7%), 대전(87.5%), 경기·충북(85.9%)임.
-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는 타지역에 비해 주거지와 상업지의 비중이 낮고 녹지 지역의 비중이 높음.
- 생산녹지 지역의 비중은 충남이 19.4%로 가장 높고, 전북(12.4%), 전남(10.5%), 경북(7.8%), 충북(7.0%) 순으로 높음.
- 따라서 타지역에 비해 이들 지역에서의 대규모 생산시설 입주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됨.

〈표 18〉 지역별 도시계획 적용 현황: 1992

(단위: Km², %)

	도시계획 구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계	보전	생산	자연
서울	665.98 (100.0)	301.24 (45.2)	21.47 (3.2)	29.08 (4.4)	314.19 (47.2)	0.00 (0.0)	3.68 (0.6)	310.51 (46.6)
부산	647.28 (100.0)	99.35 (15.3)	16.86 (2.6)	37.74 (5.8)	369.43 (57.1)	0.00 (0.0)	0.00 (0.0)	369.43 (57.1)
대구	740.78 (100.0)	77.36 (10.4)	13.46 (1.8)	21.90 (3.0)	628.01 (84.8)	0.00 (0.0)	16.15 (2.2)	611.86 (82.6)
인천	661.11 (100.0)	70.25 (10.6)	11.75 (1.8)	45.94 (6.9)	354.59 (53.6)	0.63 (0.1)	10.76 (1.6)	343.20 (51.9)
광주	744.21 (100.0)	53.47 (7.2)	6.22 (0.8)	16.62 (2.2)	667.90 (89.7)	0.00 (0.0)	32.76 (4.4)	635.14 (85.3)
대전	557.30 (100.0)	53.90 (9.7)	5.83 (1.0)	9.88 (1.8)	487.69 (87.5)	0.00 (0.0)	9.71 (1.7)	477.98 (85.8)

〈표 18〉의 계속

(단위: Km², %)

	도시계획 구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지역			
					계	보전	생산	자연
경기	2,200.14 (100.0)	220.44 (10.0)	28.63 (1.3)	39.15 (1.8)	1,889.93 (85.9)	50.44 (2.3)	88.21 (4.0)	1,751.28 (79.6)
강원	934.54 (100.0)	94.61 (10.1)	12.22 (1.3)	20.52 (2.2)	785.03 (84.0)	7.70 (0.8)	38.54 (4.1)	738.79 (79.1)
충북	627.72 (100.0)	63.16 (10.1)	8.07 (1.3)	17.08 (2.7)	539.41 (85.9)	0.78 (0.1)	44.00 (7.0)	494.63 (78.8)
충남	599.07 (100.0)	72.45 (12.1)	9.12 (1.5)	24.98 (4.2)	437.62 (73.0)	26.28 (4.4)	116.29 (19.4)	295.05 (49.3)
전북	855.27 (100.0)	94.66 (11.1)	12.79 (1.5)	32.32 (3.8)	633.89 (74.1)	0.00 (0.0)	106.07 (12.4)	527.82 (61.7)
전남	1,129.46 (100.0)	117.45 (10.4)	15.12 (1.3)	89.00 (7.9)	794.91 (70.4)	3.60 (0.3)	118.35 (10.5)	672.96 (59.6)
경북	1,338.34 (100.0)	129.44 (9.7)	18.98 (1.4)	80.15 (6.0)	1,052.27 (78.6)	138.08 (10.3)	104.18 (7.8)	810.01 (60.5)
경남	2,276.78 (100.0)	159.69 (7.0)	21.39 (0.9)	112.97 (5.0)	1,872.45 (82.2)	0.39 (0.0)	108.40 (4.8)	1,763.66 (77.5)
제주	383.62 (100.0)	37.52 (9.8)	4.85 (1.3)	3.40 (0.9)	325.30 (84.8)	28.50 (7.4)	10.67 (2.8)	286.13 (74.6)
전국	14,361.55 (100.0)	1,644.99 (11.5)	206.76 (1.4)	580.73 (4.0)	11,152.62 (77.7)	256.40 (1.8)	807.77 (5.6)	10,088.45 (70.2)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4. 지역별 도로 현황

◎ 기업 입지조건으로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중 6대 도시의 도로율
 [(도로면적÷시가지면적)×100]을 살펴보면(1993)

— 대전이 22.4%로 가장 높으며, 서울(19.3%), 대구(16.5%), 인천
 (15.6%), 광주(14.9%), 부산(13.6%) 순임.

◎ 6대 도시의 포장률[(포장도÷도로면적)×100]은

- 광주가 99.1%로 가장 높고, 인천(96.1%), 대전(95.3%), 부산(93.6%) 순임.
- 그러나 대구의 도로포장률은 88.7%로 가장 낮음.

〈표 19〉 6대도시 도로 현황: 1993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전 국
총계	도로연장(km)	7,561.43	1,907.96	1,327.69	1,058.00	860.30	1,329.95	31,798.64
	도로면적(A) (sq. km)	72.20	21.00	18.44	17.80	11.00	15.63	383.70
	포장도 (B)	연장 6,435.41 면적 66.36	1,797.12 19.66	1,210.25 16.36	1,025.80 17.10	843.80 10.90	1,212.84 14.89	28,458.47 349.35
	비포장도 (C)	연장 1,126.02 면적 5.84	110.84 1.34	117.44 2.08	32.20 0.70	16.50 0.10	117.11 0.74	3,340.17 534.35
시가지면적(D)		374.55	154.80	112.03	114.40	74.00	69.60	2,979.94
도로율(%)		19.27	13.63	16.45	15.55	14.86	22.42	12.87
국도	도로연장	168.88	112.99	109.69	60.10	110.20	128.83	4,628.30
	도로면적	6.62	2.06	3.24	1.90	2.20	2.60	80.55
	포장도	연장 166.88 면적 6.62	112.99 2.06	109.69 3.24	60.10 1.90	110.20 2.20	128.83 2.60	4,592.62 79.90
	지방도	도로연장	7,392.55	1,794.97	1,218.00	997.90	750.10	1,201.12
	도로면적	65.58	18.94	15.20	15.90	8.80	13.03	160.27
	포장도	연장 6,268.53 면적 59.74	1,684.53 17.60	1,100.56 13.12	965.70 15.20	733.60 8.70	1,084.01 12.29	13,546.05 147.21
포장률(%)		91.9	93.6	88.7	96.1	99.1	95.3	91.0

주: 1) 도시연감상의 도로면적은 행정구역내의 폭 4미터 이상으로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지칭함.

2) 도로율=A/D×100

3) 포장률=B/A×100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IV. 지역별 근로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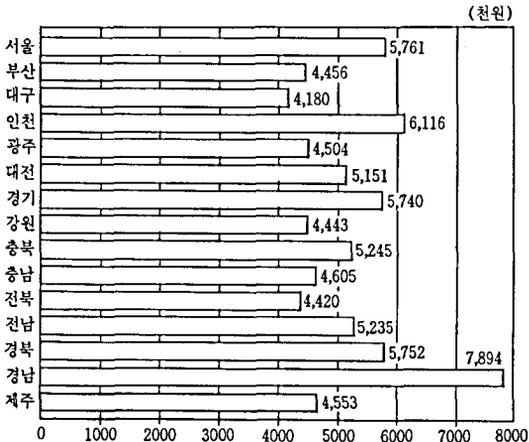
- ◎ 특정 지역의 인력수요규모가 늘어나도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낮으면 노동공급규모는 늘지 않는데 근로자생활수준을 1인당 총생산, 임금, 소비자물가상승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지역별 1인당 GDP

- ◎ 1인당 道內總生産(1992)을 살펴보면

- 1992년 기준으로 경남이 7,894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인천(6,116천원), 서울(5,761천원), 경북(5,752천원), 경기(5,740천원) 순임.

〔그림 17〕 1인당 도내총생산액: 1992



자료: 통계청, 『지역통계연보』, 1993.

- 대구가 4,180천원으로 가장 낮고, 전북(4,420천원), 강원(4,443천원), 광주(4,504천원) 등도 낮은 편임.
- 1인당GDP가 가장 높은 경남지역은 가장 낮은 대구지역의 1.9배에 달함.

2. 지역별 임금수준

◎ 지역별 광공업 근로자임금(1992) 수준을 비교해 보면

- 경남(970천원), 인천(806천원), 경북(786천원), 경기(757천원) 순으로 높음.
-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751천원) 미만임.
- 제주(575천원) 지역이 가장 낮고, 전북(619천원), 부산(646천원), 대구(647천원)도 낮은 편임.

〈표 20〉 지역별 근로자 임금수준(광공업): 1992

(단위: 천원)

지역		임금수준	지역		임금수준
서울	울	675	충북		619
부산		646	충남		667
대구	구	647	전북		619
인천	천	806	전남		693
광주	주	723	경북		786
대전	전	682	경남		970
경기	기	757	제주		575
강원	원	735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2』, 1994.

3. 지역별 물가

- ◎ 1991~93년 사이의 소비자물가 상승추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대상기간 동안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음.
 - 특히 경남 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타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1993년의 경우 2.9%에 머물렀음.
-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제일 높은 지역은 대전, 경기 지역으로 1992, 1993년에는 전국 평균상승률을 훨씬 상회하였음.
 - 대전 지역의 1992, 199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각 7.3%, 6.4%이며, 경기 지역은 7.2%, 5.2%임.
- ◎ 생계비와 관련하여 지역별 임금수준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고려하면
 -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임금도 높고 물가상승률도 높음.
 - 그러나 경남 지역의 경우는 임금수준도 최고일 뿐만 아니라 물가도 안정적이어서 근로자생활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됨.

〈표 21〉 지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

		1991	1992	1993
서	울	9.7	5.7	5.0
부	산	9.7	7.2	4.3
대	구	9.4	6.3	5.4
인	천	8.3	6.7	4.8
광	주	8.8	6.0	4.9

〈표 21〉의 계속

(단위: %)

		1991	1992	1993
대	전	8.4	7.3	6.4
경	기	9.2	7.2	5.2
강	원	9.6	6.9	4.4
충	북	8.5	5.7	4.1
충	남	8.6	6.6	4.6
전	북	8.6	7.4	4.9
전	남	8.6	5.8	4.6
경	북	8.3	6.0	3.4
경	남	8.7	5.2	2.9
제	주	9.5	6.9	5.0
전	국	9.3	6.2	4.8

자료: 통계청, 『물가연보』, 1993.

4. 지역별 1인당 조세 부담

◎ 6대도시의 조세부담 현황(1993)을 살펴보면

- 세대당 부담액이 제일 큰 도시는 서울(5,141천원)임.
- 이는 제일 낮은 대구(2,291천원)의 2.24배에 달하는 수준임.

◎ 1인당 조세 부담액은 서울(1,609천원), 인천(914천원), 광주(725천원), 대전(732천원), 부산(702천원), 대구(675천원) 순임.

- 서울의 1인당 擔稅額은 대구에 비해 2.38배 많음.

◎ 1인당 부담액을 국세과 지방세 구성비로 나눠보면

- 서울의 지방세비중이 18.6%로 제일 낮음.
- 여타의 도시들은 서울에 비해 지방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임.

〈표 22〉 6대도시 조세부담 현황: 199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부담총액 (백만원)	전 체	17,520,697	2,173,307	1,561,635	1,955,514	905,128	870,196
	국 세	14,260,912	1,686,987	983,436	1,407,750	645,721	518,679
	지방세	3,259,785	1,026,320	578,199	547,764	259,407	351,499
세대당 부담액 (원/세대)	전 체	5,140,928	2,494,859	2,291,363	3,036,493	2,518,042	2,506,158
	국 세	4,148,441	1,551,168	1,442,980	2,185,933	1,796,378	1,493,844
	지방세	956,487	943,691	848,382	850,559	721,663	1,012,314
1인당 부담액 (원/人)	전 체	1,608,953 (100.0)	702,418 (100.0)	675,399 (100.0)	914,464 (100.0)	724,873 (100.0)	731,848 (100.0)
	국 세	1,309,602 (81.4)	436,725 (62.2)	425,331 (63.0)	658,311 (72.0)	517,127 (71.3)	436,232 (59.6)
	지방세	299,351 (18.6)	265,692 (37.8)	250,068 (37.0)	256,152 (28.0)	207,746 (28.7)	295,616 (40.4)

주: ()안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 지방세 차지 비중은 대전(40.4%), 부산(37.8%), 대구(37.0%), 광주(28.7%), 인천(28.0%) 순임.

5. 지역별 주택 현황

◎ 6대도시의 주택 현황(1993)을 살펴보면

- 서울의 주거형태는 단독주택 45.8%, 아파트 37.6%, 연립주택 8.3%, 다세대주택 8.4%로 전국 평균치에 근사함.
- 부산의 경우는 단독주택 비중이 51.5%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음.
- 대구의 경우는 연립주택의 비중이 2.0%로 매우 낮은 반면 다세대주택의 비중이 18.3%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음.

- 아파트 비중이 제일 높은 도시는 광주(50.9%)로 전국 평균(38.5%)에 비해 월등히 높음. 그 다음으로 인천(47.0%)도 높은 편임.

◎ 6대도시 중 주택보급률이 제일 높은 도시는

- 대전으로 82.2%에 달함.
- 이는 제일 낮은 서울(67.0%)보다 15.2%포인트 높은 수치임.

<표 23> 6대도시 주택현황: 1993

(단위: 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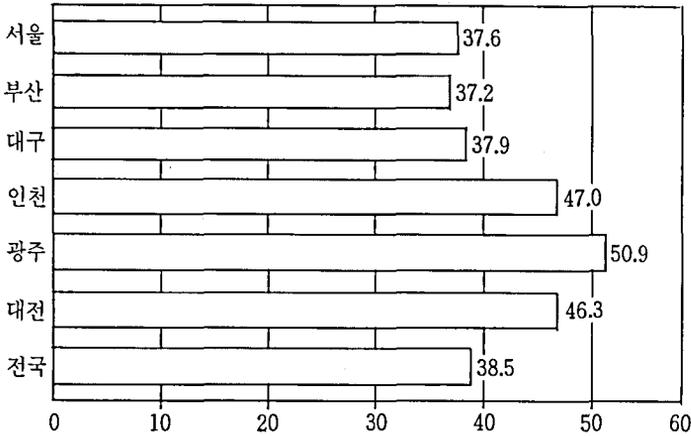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일반세대수(A)	2,701,974	955,446	607,740	564,911	343,238	285,251	10,150,841
일계(B)	1,809,456 (100.0)	640,261 (100.0)	417,704 (100.0)	431,130 (100.0)	260,953 (100.0)	234,589 (100.0)	7,379,079 (100.0)
반독주택	828,018 (45.8)	329,699 (51.5)	160,016 (38.3)	140,810 (32.7)	120,070 (46.0)	99,282 (42.3)	3,472,032 (47.1)
아파트	679,551 (37.6)	238,428 (37.2)	158,297 (37.9)	202,605 (47.0)	132,858 (50.9)	108,572 (46.3)	2,844,401 (38.5)
주연립주택	149,841 (8.3)	38,707 (6.0)	8,259 (2.0)	39,968 (9.3)	6,573 (2.5)	11,668 (5.0)	473,419 (6.4)
택다세대주택	152,055 (8.4)	33,427 (5.2)	76,259 (18.3)	47,747 (11.1)	481 (0.2)	9,754 (4.2)	477,930 (6.5)
비주거용건물내의주택	-	-	14,873 (3.6)	-	971 (0.4)	5,313 (2.3)	111,297 (1.5)
주택 보급률	66.96	67.01	68.73	76.31	76.02	82.23	72.69

주: 1) 일반세대수(주택이 필요한 세대)=주민등록상 세대-단독세대-집단세대

2) 주택보급률=B/A×100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그림 18〕 6대도시의 아파트 차지 비중: 1993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6. 지역별 보건의료시설 현황

◎ 6대도시의 보건의료시설 현황(1993)은

- 전국 병원의 34.0%에 해당하는 8,978개의 병원이 서울에 밀집해 있음.
- 종합병원 병상수 비중 역시 서울이 전국의 33.4%를 차지함.

◎ 6대도시의 지역내 인구대비 병상수 비중[(병상수/인구)×100]은

- 광주(0.46), 부산(0.44), 대전(0.43), 대구(0.38), 서울(0.39) 순임.
- 그러나 인천은 0.32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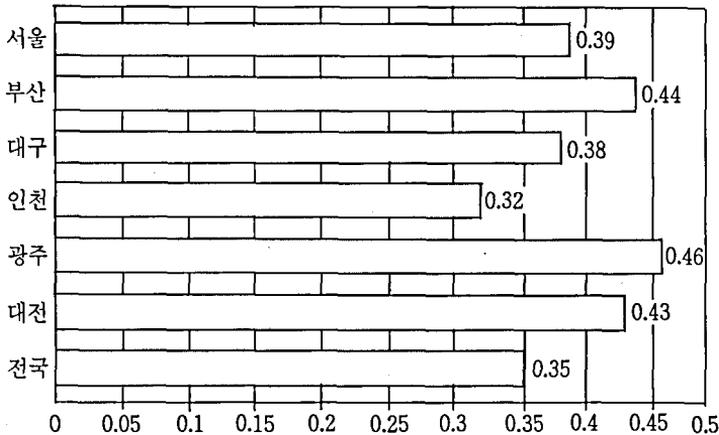
〈표 24〉 6대도시의 보건의료시설 현황: 1993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전체	병원수	8,978	2,612	1,775	1,101	860	931	26,383
	병상수	41,562	16,655	8,611	6,865	5,555	4,944	155,921
종합병원	병원수	69 25	8	12	6	6	242	
	병상수	27,365	8,600	4,598	3,556	2,679	2,524	81,891
병원	병원수	84 39	9	9	21	10	354	
	병상수	4,937	1,961	918	664	1,014	954	24,580
특수병원	병원수	5	9	2	2	—	—	43
	병상수	2,494	2,263	470	577	—	—	9,543
의원	병원수	4,053	1,254	804	565	438	457	12,457
	병상수	5,831	3,306	2,224	1,982	1,720	1,269	36,463
치과병원	병원수	2,624	659	467	311	255	221	7,085
	병상수	44	—	—	—	10	—	96
한방병원	병원수	2,004	520	448	182	86	203	5,162
	병상수	781	132	357	73	83	187	2,308
인구대비병상수비중 (병상수÷인구)×100		0.39	0.44	0.38	0.32	0.46	0.43	0.35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그림 19〕 6대도시의 인구대비 병상수 비중: 1993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7. 지역별 도서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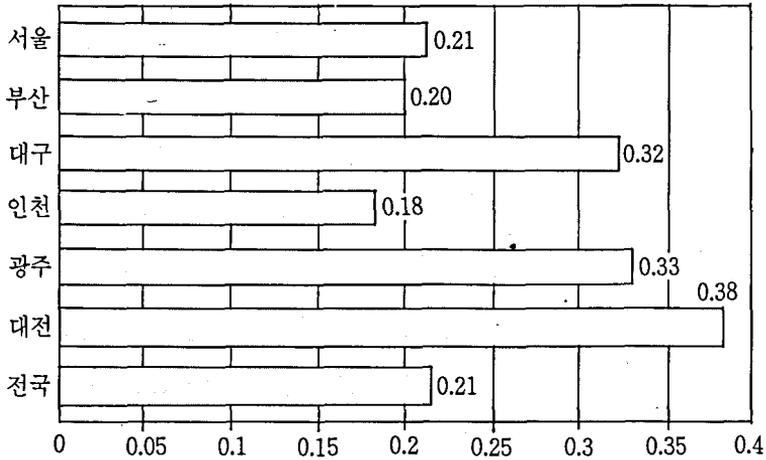
- ◎ 6대도시의 지역인구대비 도서관 좌석수[(좌석수÷인구)×100]는
- 광주(0.70), 대전(0.60), 대구(0.44), 인천(0.38), 부산(0.28), 서울(0.2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낮게 나타남.
 - 1인당 장서수는 대전(0.38권), 광주(0.33권), 대구(0.32권) 순으로 이들 지역은 높은 편에 속하나 서울(0.21권), 부산(0.20권), 인천(0.18권)은 매우 낮음.

〈표 25〉 6대도시 도서관 현황: 199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공공 도서관	도서관수	27	10	6	7	6	3	252
	좌석수	29,134	10,669	9,855	8,140	8,522	6,872	161,503
	(좌석/인구)×100	0.27	0.28	0.44	0.38	0.70	0.60	0.36
	장서수	2,083,235	761,101	752,892	379,794	396,808	437,084	9,414,090
	1인당	0.21	0.20	0.32	0.18	0.33	0.38	0.21
	장서수 기본	-	720,000	888,000	704,910	1,087,852	357,000	8,618,521
	장서수 장서율 예산 (백만원)	-	105.70	81.74	53.87	36.47	122.43	109.23
24,897	4,963,270	5,125	3,426	4,029	4,218	5,190,496		
학교 도서관	도서관수	70	26	13	11	15	13	566
	좌석수	82,325	27,826	17,365	7,656	18,278	15,356	272,986
	장서수	14,311,945	2,948,397	1,847,305	856,489	1,789,051	2,544,985	36,828,103

- 주: 1) 장서율(%)=(장서수/기본장서수)×100
 2) 학교 도서관은 실업전문대학 이상 도서관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그림 20] 6대도시의 1인당 장서수: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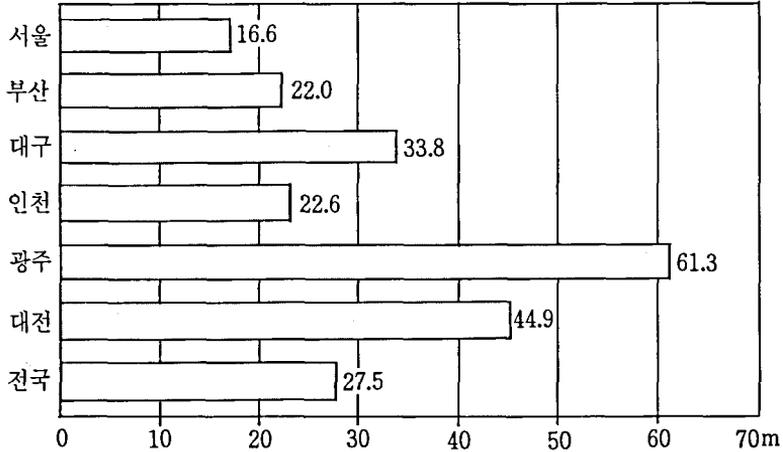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8. 지역별 공원 현황

◎ 6대도시의 도시공원 현황(1993)을 살펴보면

- 1인당 도시공원면적(계획+시설)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서울이 16.6m²로 가장 낮고, 부산(22.0m²), 인천(22.6m²)도 매우 낮음.
- 반면 광주는 61.3m²로 제일 높고, 대전도 44.9m²로 높음.
-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제일 높은 광주가 제일 낮은 서울의 3.7배에 달함.

〔그림 21〕 6대도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 1993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표 26〉 6대도시 도시공원 현황: 1993

(단위: 개, 1,000m², m²)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국
합계	계획	개소	1,531	280	406	309	227	309	9,155
		면적	112,664	54,551	54,137	36,543	43,274	39,912	947,578
	시설	개소	1,213	183	275	231	129	196	4,260
		면적	64,867	28,828	21,853	11,393	31,163	11,834	276,089
		1인당공원 면적(m ²)	16.6	22.0	33.8	22.6	61.3	44.9	27.5
어린이 공원	계획	개소	1,083	168	225	180	152	155	5,179
		면적	1,648	249	455	851	350	330	11,112
	시설	개소	938	129	141	165	110	147	3,014
		면적	1,312	203	292	523	263	198	7,145

〈표 26〉의 계속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전 국	
근린 공원	계획	개소 면적	223 26,457	48 17,457	44 7,541	63 6,368	50 12,660	36 8,908	1,618 259,311
	시설	개소 면적	146 10,529	26 10,055	13 2,002	18 872	16 2,544	24 1,826	516 48,243
도시 자연 공원	계획	개소 면적	23 72,111	9 11,488	3 38,007	9 19,145	1 27,030	5 2,513	291 481,929
	시설	개소 면적	8 44,229	1 332	1 16,805	4 5,669	1 26,640	3 6,023	62 146,560
묘지 공원	계획	개소 면적	4 2,990	2 1,050	4 2,061	1 3,412	1 605	1 3,191	60 27,451
	시설	개소 면적	4 2,990	2 1,050	4 2,061	1 3,412	1 605	1 3,191	28 18,157
시설 녹지	계획	개소 면적	181 2,012	44 4,596	128 3,486	52 1,745	21 1,385	42 1,969	1,869 57,735
	시설	개소 면적	106 1,111	22 1,734	116 693	41 541	- -	21 595	586 12,775
유원 지및 체육 공원	계획	개소 면적	17 7,446	9 19,789	2 2,587	4 5,048	2 1,217	- -	138 10,040
	시설	개소 면적	11 4,696	3 15,532	- -	2 402	1 1,111	- -	54 43,209

자료: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4.

V. 지역별 노사관계

1. 노사분규

- ◎ 지역별 노사관계의 주요 현황을 노사분규 및 노동조합에 대한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표 27>과 같음.
 - 단, 사업체수 및 근로자수에서 지역별로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지역별 노사관계의 비교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3년에 전체 144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음.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 경기 37건, 서울 31건, 경남 29건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음.
 - 충북 및 충남 각각 1건, 강원 및 전남 각각 2건 등의 순으로 적게 발생하였음.
- ◎ 그러나 지역별 사업체수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노사분규 발생건수를 근거로 특정 지역이 노사분규 발생이 빈발하다고 할 수 없음. 즉 노사분규 발생성향은 해당지역의 사업체수로 조정되어야 함. 이를 사업체 1,000개소당 노사분규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3년에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는 153,554개소로 사업체 1,000개소당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0.94건 이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 3.27, 제주 2.69, 경기 1.61 등의 순으로 파업성향이 높았음.
 - 충북 0.26, 충남 0.27 등의 순으로 파업성향이 낮았음.
 - 전반적으로 1993년에 파업성향은 경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 및 충남이 가장 낮았음.

〈표 27〉 지역별 노사관계 주요 지표 현황: 1993

	노사분규 발생건수	노동손실 일 수	취업자수 (천명)	사업체수 (5인이상)	단위노동 조합 수	조합원수
서울	31	75,516	4,942	58,147	1,451	218,653
부산	7	66,100	1,642	11,646	572	130,250
대구	6	13,206	953	7,622	403	42,749
인천	6	43,903	777	8,091	426	65,332
광주	3	11,431	478	2,771	249	28,475
대전	2	801	472	2,456	224	22,688
경기	37	100,000	2,650	23,011	1,130	113,073
강원	2	32,860	681	3,380	205	24,970
충북	1	775	594	3,826	208	23,708
충남	1	134	868	3,770	223	16,014
전북	4	10,087	860	6,369	252	27,971
전남	2	1,539	1,117	4,814	214	22,732
경북	8	22,595	1,266	6,917	389	60,257
경남	29	877,010	1,658	8,878	557	128,090
제주	5	8,191	248	1,856	118	8,079
전체	144	1,264,148	19,203	153,554	6,621	933,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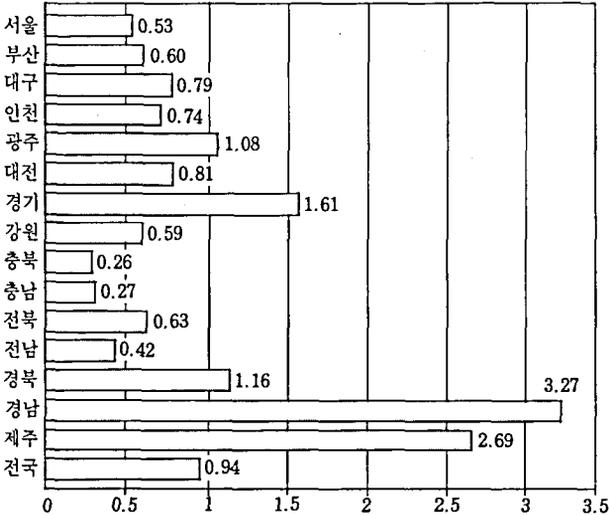
주: 노동조합 조직통계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동조합이 설립된 노동조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1994. 및 내부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4.

◎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3년에 전국적으로 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1,264천일이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 877천일, 경기 100천일, 서울 75천일 등의 순서로 노동손실일수가 컸음.
- 충남 134일, 충북 775일, 대전 801일 등의 순서로 작았음.

〔그림 22〕 지역별 노사분규 발생성향(사업체 1,000개소당) :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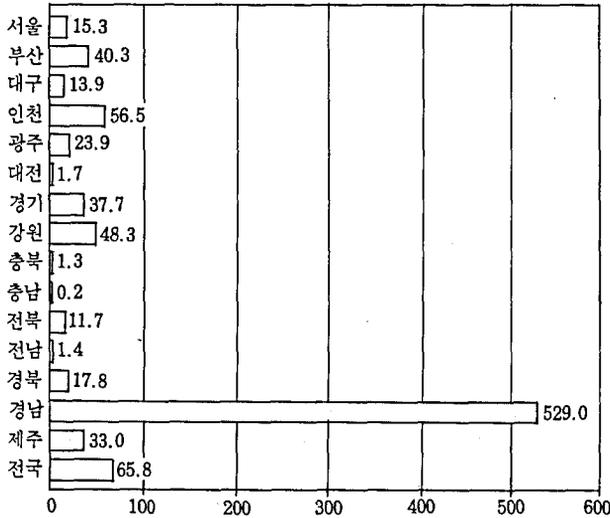


자료: 노사분규발생건수(사업체 1,000개소당, 1993)

◎ 그러나 지역별로 취업자수가 크게 차이가 나므로 노동손실일수를 근거로 특정 지역이 노사분규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는 할 수 없음. 즉 취업자수의 지역별 격차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피용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가 대표적인 지표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취업자수 통계로 대체함.

- 1993년에 전국의 취업자 1,000인당 노동손실일수는 65.8일이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경남 529.0일, 인천 56.5일, 강원 48.3일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충남 0.2일, 충북 1.3일, 전남 1.4일 등의 순으로 낮았음.
- 비록 1993년에 발생한 전체 노동손실일수의 약 70%가 경남에서 발생하였고 이를 취업자수로 조정하더라도 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는 경남이 가장 높았음.

[그림 23] 지역별 노사분규에 따른 노동손실일수(취업자 1,000인당): 1993



2. 노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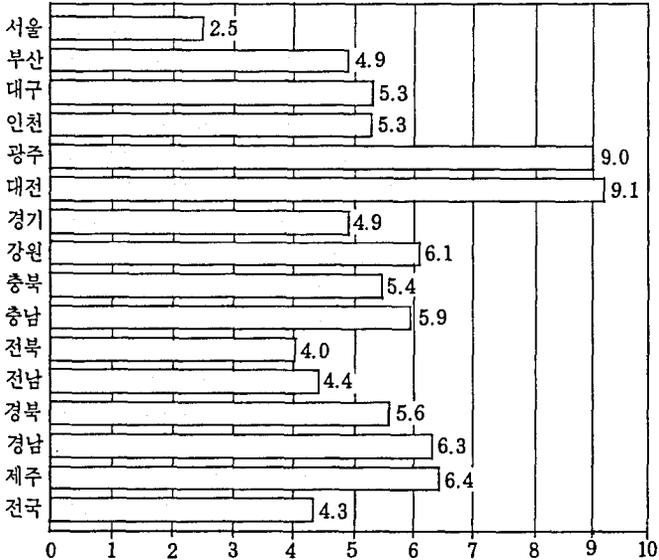
◎ 노사관계는 노사분규 이외에 노동조합 조직통계로 살펴볼 수 있음. 단,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가 직접 관리하는 노동조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1993년말 노동조합수는 6,621개인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 서울 1,451개, 경기 1,130개 등의 순으로 노동조합수가 많았음.
- 제주 118개, 전남 214개 등의 순으로 노동조합수가 적었음.

◎ 그러나 지역별로 사업체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노조결성 사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단, 사업체수는 5인 이상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함.

- 노조결성 사업체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1993년 현재 4.3%였음. 즉 100개의 사업장 중 4.3개소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음.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24〕 지역별 노동조합조직률(사업체 기준) : 1993



- 대전 9.1%, 광주 9.0% 등의 순서로 높았음.
- 서울 2.5%, 전북 4.0% 등의 순서로 낮았음.
- 그러나 이 사업체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체규모 및 업종의 지역별 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지역별로 노동조합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 219천명, 부산 130천명, 경남 128천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제주 8천명, 충남 16천명, 대전 23천명 등의 순으로 적었음.

◎ 그러나 지역별로 취업자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수를 근거로 특정 지역이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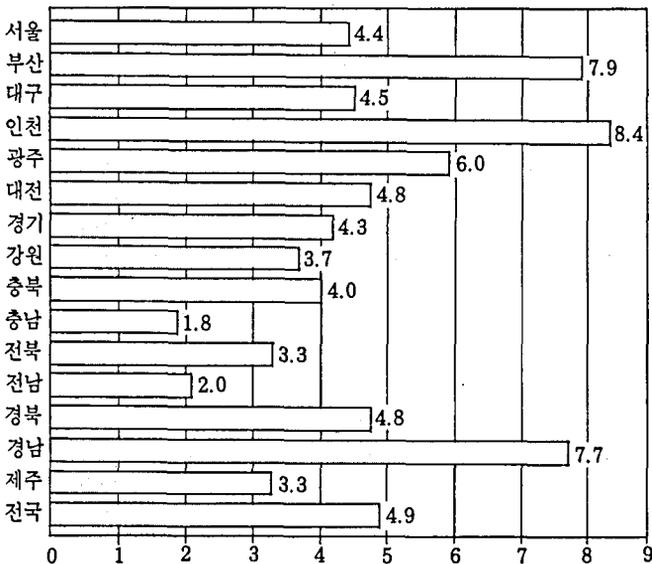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피용자에 대비한 지표가 적합하나 자료의 제약으로 취업자에 대비한 노동조합 조직률로 살펴볼 수 있음.
- 1993년 현재 노조조직률은 4.9%였음(이는 통상적인 피용자 또는 비농가 상시고 대비 노동조합 조직률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취업자기준 노조조직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 인천 8.4%, 경남 7.7%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충남 1.8%, 전남 2.0% 등의 순으로 낮았음.
-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인천 및 경남 등 공업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즉 농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노조조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끝으로, 노동조합 조직에서도 중앙조직 이외에 각종 형태의 지역조직이 존재하고 있음.

- 한국노총의 경우 지역본부와 그 산하에 지역지부 등의 지역조직이 있으며 지역노동교육상당소 등이 있음. 그리고 주요 산별연맹도 전국 주요지역에 지역본부를 갖고 있음.
- 전노대 특히 전노협의 경우 1993년말 현재 12개의 지역조직이 있음.

[그림 25] 지역별 노동조합조직률(취업자기준): 1993



Ⅵ. 지방화시대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구도 및 노동정책의 방향

1. 노동시장의 구도

- ◎ 지역의 인력개발 문제는 지역경제개발 전략의 핵심을 이루게 됨.
 - 인력개발의 전제는 그 지역이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할 것인가를 설정해야 하는 것임(‘유망주력’산업).
 - ‘유망주력’ 산업에 필요한 직종을 중심으로 인력수요를 예측하고
 - 인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인력공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유망주력’ 산업을 설정할 때 가용인력의 공급규모나 여건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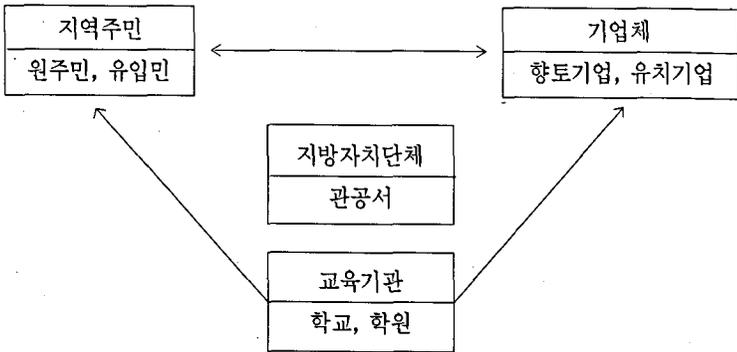
- ◎ 지역차원에서 인력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공급 및 양성주체와 수요자간의 네트워크(networking) 구축이 매우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코디네이트(coordinator)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인력공급 및 양성 주체와 인력수요 주체들간의 신뢰와 협조관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담당해야 할 것임.

- ◎ 지역의 인력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념도를 주체별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지역주민은 원주민과 유입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력공급의 주체가 됨.
 - 기업체는 향토기업과 유치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인력수요의 주체

가 됨.

-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와 사설학원 등 비정규학교로 나눌 수 있으며 인력양성의 주체가 됨.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교육의회로 구성되나 법원, 노동사무소 등 중앙행정조직도 있음.

[그림 26] 지역의 인력개발 네트워크 개념도



◎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 유치기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됨.

- 향토기업과 유치기업의 경영전략이나 특성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게 된 것임.
- 유치기업의 경우 인력채용권한을 현지로 이양하고 이에 따라 현지인력의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향토기업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 유치기업은 대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유치기업의 인력흡입력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존의 향토기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유치기업은 지역의 인력양성을 위해서 교육훈련시설이나 훈련교사의 제공 등을 통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음.
- 향토기업 중에서 일부는 유치기업과 생산에서 계열화 관계로 전환될

것임.

- 향토기업의 경우 유치기업을 통해서 정보력이나 경영능력 등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것임.

◎ 원주민과 유입민은 생활과 의식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역경제개발이 본 궤도에 오를 때 유입민의 비율이 커질 것임.
- 원주민의 경우 지역경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질 제고가 핵심 과제가 되며
- 원주민의 자질 제고를 위해서 기업과 교육기관이 직업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실시에 서로 협조해야 할 것임.
- 유입민은 주거비용 등 생활비가 싸고 녹지공간이 풍부하고 지역의 연고자들과 유대를 활용하는 점에서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느끼게 될 것임.
- 유입민의 경우 순조로운 정착이 핵심과제가 되며 이를 위해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확보, 교육기관의 수준제고 등이 유입을 위한 기반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와 사설학원으로 나눌 수 있음.

- 학교는 그 지역의 유망 '주력'업종의 연계차원에서 특화될 필요가 있음.
-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한다든지, 지역의 중심부에 센터를 만든다든지 하여 집약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학원의 경우, 지역경제개발과 함께 외부에서 자본이나 훈련교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며
- 단기교육에 대한 수요, 전문분야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인력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력의 진출 경향이 줄어들고, 반면 인력의 재 유입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방인력의 공급 확대가 예상됨.

- 지역간의 통근인력의 규모가 확대되고 주거여건이 조성되면 이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의 경제개발 전망이 밝아질 때 인력의 재유입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임.

◎ 인력 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기업이 공동으로 훈련시설을 확보하고,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교사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통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훈련 시설부지를 제공하고, 훈련시설 건설과 훈련비용 지원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조달하고, 훈련프로그램의 설계나 훈련 교사의 제공 등은 기업에서 담당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단독의 인력양성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할 필요도 있음.

2. 노사관계의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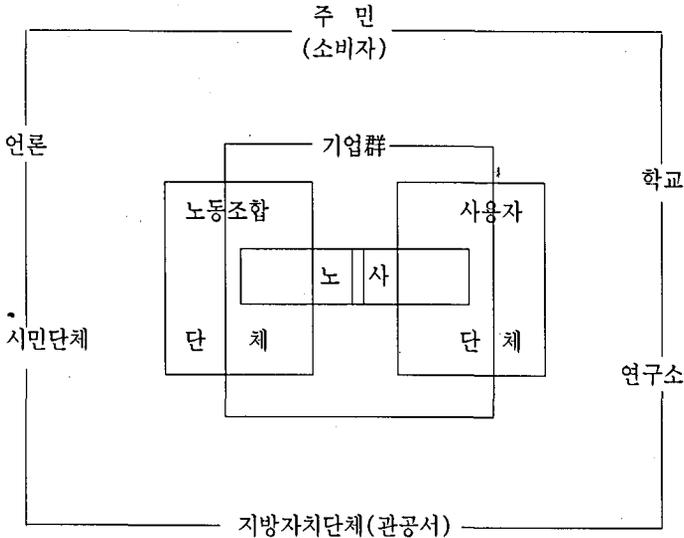
◎ 순조로운 지역경제개발의 1차적인 관건은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모으는 데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의 노사관계의 구도설계가 지방화시대 초기의 핵심과제가 될 것임.

- 학연·혈연 등의 인간관계가 중앙단위보다 지방단위에서 보다 강하게 작용하게 됨.
- 또한 지방단위에서 정보교류나 이동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게 됨.
- 이러한 점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분파화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음.

◎ 지역차원의 노사관계 성격은 중앙차원의 노사관계 성격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노사관계 구도도 달라지게 됨.

-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 노사관계의 구도에 있어서도 참여정신이 기저에 깔려야 할 것임.
 - 중앙단위의 노사관계에 비해서 지방단위의 노사관계는 하향식 의사결정보다 상향식 의사결정을 보다 강하게 반영해야 하고
 - 이러한 각도에서 지방의 노사관계 구도는 노사관계 주체들간의 권력공유(power sharing)보다 정보공유(information sharing)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임.
-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방화시대의 초기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방노사관계의 주체들 사이의 네트워킹(networking)을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장, 노동사무소장 등 중앙부처의 현지 최고책임자, 지방노사단체 대표들이 1차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나서야 할 것임.
 - 노사관계 네트워크의 대상을 확대해야 됨.
 - 지역의 생산활동을 1차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의 노사를 중핵으로 하고 노동조합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기업들과 지방의 학교, 시민단체, 언론, 연구소 등과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가교역할을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소비자의 개념으로 보고 노사단체, 학교, 언론, 시민단체, 연구소간의 신뢰와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총체적 만족을 기함.
- ◎ 이러한 지방노사관계의 구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공동체적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임.
- 공동체적 노사관계는 각 주체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가운데 지역경제개발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 각 주체들간의 지원이나 협조관계가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성되어야 하며
 - 상호간의 갈등을 신뢰와 대화로써 풀어간다는 의지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그림 27] 지방의 공동체적 노사관계에 대한 개념도



-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노사단체의 역할이 커질 것임.
 - 지방노사관계의 구도를 설계하는 데 노사단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 중앙과 지방, 지역간의 이해관계 조정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 지방내에 있어서 시민단체, 언론 등 지역공동체의 각 주체간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특히 지방의 노사단체는 향토기업과 유치기업간의 갈등, 유치기업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됨.

3. 노동정책의 방향

- ◎ 중앙과 지방의 기능 재조정 차원에서 노동정책의 방향도 재조정되어야 함.

- 노동시장의 노사관계의 분권화 추세에 따라 지방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노동정책은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노동부에서는 전국적인 차원의 근로조건 설정 및 감독과 인력개발 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개발계획 수립시 지원,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를 위한 조정자 역할을 담당.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차원 인력개발 계획과 수립 및 시행뿐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 노동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건의 등을 담당.

◎ 노동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인력을 키우지 못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전문인력을 중앙에서 교육시키는 방안과 노동부의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화와 노동 -자료집-

1995년 2월 20일 인쇄
1995년 2월 25일 발행

발행인 金 大 模

발행처 한국노동연구원

주 소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16-2
 中小企業會館 9層
 (代) (02) 782-0141

인 쇄 圖書出版 昌甫
 (代) (02) 272-6997

등록일자 1988년 9월 14일
등록번호 제13-155호

© 1995.

정가 5,000원

ISBN 89-7356-084-0